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발전 방향과 과제

- 일 시 : 2021년 5월 26일(수) 14:00~16:30
- 운영방식 : ZOOM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포럼

일 정 표

□ 좌장: 박삼철 (단국대 교수)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개회사	고전 (한국교육행정학회장)
14:05~14:10	인사말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14:10~14:20	소규모 · 통합운영학교 정책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 담당자)
14:20~14:40	[기조발표] 통합운영학교의 쟁점과 발전방향	임연기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장)
14:40~15:00	[주제발표 1]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발전방안	성열관 (경희대 교수)
15:00~15:20	[주제발표 2] 통합운영학교 교원자격 관리 발전방안	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
15:20~15:30	휴식	
15:30~16:10	지정토론	김대현 (부산대 교수) 김규태 (계명대 교수) 변운섭 (전남교육청미래학교추진단장) 최창수 (서울 강빛초중 교장) 장덕호 (상명대 교수)
16:10~16:30	자유토론	참가자 전체
16:30	폐회	

차 례

< 기조발표 > 통합운영학교의 쟁점과 발전방향

임연기(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장)	3
-------------------------	---

<주제발표 1>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발전방안

성열관(경희대 교수)	31
-------------------	----

<주제발표 2> 통합운영학교 교원자격 관리 발전방안

김도기(한국교원대 교수)	48
---------------------	----

[토론 1]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

김대현(부산대 교수)	67
-------------------	----

[토론 2] 통합운영학교의 이슈와 대책에 대한 토론

김규태(계명대 교수)	69
-------------------	----

[토론 3] 전남의 통합운영학교, 그 방향성을 말한다.

변윤섭(전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장)	74
---------------------------	----

[토론 4] 강빛초·중이음학교 운영사례 중심으로 살펴본

통합운영학교 제약요인 및 정책건의

최창수(서울 강빛초중이음학교 교장)	79
---------------------------	----

[토론 5] 통합운영학교 발전 방안

장덕호(상명대 교수)	87
-------------------	----

기 조 발 표



통합운영학교의 쟁점과 발전 방향

임연기(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장)

I. 서언

‘통합운영학교’는 대다수 국민은 물론 교육전문가조차 깊이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명칭의 학교이다. 현행 법령에서 학교의 종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만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운영학교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시설·설비와 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각기 학교급이 다른 두 개 또는 세 개의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이다.

세계 여러 나라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교육적 맥락 속에서 공통적이면서도 각기 다른 학교급 간의 통합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학교급 간의 통합학교는 ‘학제로서 통합’의 위상을 갖기도 하고, 학제 상으로는 분리한 상태에서 ‘운영 차원에서 통합’ 형태를 띠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핀란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9년제 통합학교로서 단일의 종합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단계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학교급 간 통합운영을 도모하고 있다(임연기 외, 2020: 336).

흔히 통합운영학교와 통합학교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통합운영학교는 아직 학교의 종류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합학교라고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교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는 학교급 간 종적 통합학교로서 인정할 수 있다. 사실 통합학교는 동일 학교급의 횡적 통폐합 이후 두 개 이상의 학교가 하나의 학교로 통합한 이후의 학교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통합학교”란 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합운영학교와 유사한 개념으로 병설학교와 부설학교가 있다. 병설학교는 병설 유치원, 병설 중·고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의 학교를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일부 학교는 1인의 학교장, 단일의 행정실 운영과 함께 운동장 등 일부 시설을 공유하기도 한다. 부설학교는 교육대학 부설학교처럼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산업체 등 주된 기관에 딸려 설치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부설학교로서 통합운영의 경우도 가능하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부설학교라는 명칭을 우선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1998년 8교로 출범하여 2021년 3월 현재 118교에 그쳐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수의 0.9% 미미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1999년 53교로 정점을 찍고, 2003년까지 6년 동안 91교를 지정했던 초기의 추세에 비하면 거의 답보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13교 이상이 상급학교의 폐교,

학교 이전, 학교 당국의 희망에 따라 지정해제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2009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통합운영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였다(임연기 외, 2013 b: 6). 일부 법령을 개정하여 통합운영 전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화, 교직원 배치기준 완화와 교육과정 및 예산 편성운영의 자율권 부여, 학교장 겸임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보완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2010 ~ 2012).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제도적, 행·재정적 지원확대를 통해 2012년까지 전국에서 50개 추가 지정이라는 야심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2010년 2교, 2012년 2교, 2013년 2교 지정으로 성적표는 참담하였다.

2018년 조사(임연기 외, 2018)에 따르면, 학교급 간의 시설 공동활용을 가늠할 수 있는 수업시중의 통합운영은 80교 가운데 중·고통합운영학교에서만 9교에 그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정규교과 겸임수업은 32교 중에서 2교에서 각 1명씩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교원자격의 제약이 없는 창의적체험활동에서도 80교 중에서 68교가 완전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역시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무늬만 통합운영학교이지 거의 병설학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통합운영학교의 존재이유를 재조명해야 하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첫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심)는 2016년 4월 서울 헬리오시티(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단지에 초·중 통합운영 학교 신설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에서 해누리 초·중 이음학교가 2019년 개교하였고(임연기 외, 2018: 3), 뒤를 이어 도시지역에서 조건부 신설허가를 받은 통합운영학교들이 문을 열고 있다. 둘째,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농어촌 은 물론이고 일부 도시지역 학교의 급격한 학생수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학교체제의 다양화 방안의 일환으로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다 학교 간의 통합운영학교가 출현하고 있다. 그간 1:1 학교급 간의 종적 통합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동일 학교급 간의 횡적 통합과 함께 다른 학교급 간의 종적 통합을 병합한 통합운영학교가 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통합운영학교의 제도와 운영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세라고 판단한다. 이제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통합운영학교의 활력을 도모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지점이다. 병설 수준에서 벗어나 인적, 물적 자원의 실질적 통합운영, 나아가 학교급 간의 교육과정 통합을 구현하는 미래 통합운영학교의 비전과 전략을 구상하는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운영학교의 현 단계와 쟁점을 짚어보고 발전방향과 전략적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통합운영학교 제도의 도입과 지원

통합운영학교라는 용어가 정부의 공식 문건에 등장한 것은 1996년 2월 9일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의 제3차 대통령 보고서(교육개혁위원회, 1996: 51)에서 이다.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초·중등학교 제도를 농·어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등 각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을 위해 교원, 시설·설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통합운영의 유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세 가지 유형을 제안하였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지원체제 확립 차원에서 초·중등학교 제도 운영의 탄력화 일환으로 통합운영학교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교육과정 개혁을 위하여 지원체제의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학교제도의 탄력적 운영 차원에서 통합운영학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은 교육과정의 통합이 중심이다.

그러나 1997년 구 「교육법」 제85조의 2에 초·중등학교의 통합·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다시 전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는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인 학교운동을 위하여’로 한발 물러섰다. 학교 급별 교육과정의 통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통합을 추구하지 않고서도 통합운영 학교의 설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조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통합운영 학교제도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작동하고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서는 효율적인 학교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하여 정의하자면 통합운영학교란 각기 학교급이 다른 학교의 운영을 통합하는 학교이다.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 간의 교육과정 통합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통합운영학교를 서둘러 제도화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학교운영의 효율화가 시급한 과제였고, 당시에 국가가 주도하여 학교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학교 통폐합을 위해 동원한 방편 중의 하나로 출발하였다. 이는 정부가 1998년 통합운영학교를 최초로 지정해서 운영한지 10년이 지난 이후에야 통합운영학교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는데 2009년 8월 학교 통폐합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2009년 11월에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9월부터 통합운영학교 프로그램 운영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학교급 간 통합수준 확대와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8월 사업공고를 통하여 3년간(2010~2012) 연차적 재정지원을 추진하였다.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매년 1천만원을 지원하는 기본 프로그램 89교, 매년 2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특별프로그램

21교를 선정·지원하였다. 2010년 4월 1일 기준 전체 통합운영학교 102교로부터 기본프로그램 90개, 특별프로그램 29개를 신청 접수하였다. 심사를 거쳐 총 119개 프로그램 중에서 110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는데, 기본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을 중복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수로는 89교가 참여하였다(임연기 외 2013 b 참조). 공주대학교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를 사업관리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하였다.

교육부는 2013년에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교육부·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2013: 3).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가 선정한 1교를 포함하여 초+중 유형 3교(경기, 전북, 경남), 중+고 유형 2교(경북, 경남), 초+중+고 유형 1교(인천) 총 6교가 참여하였다. 연구학교 지원방향은 학교실정에 적합한 통합운영학교 모델 정착, 통합운영학교의 취지에 맞는 특색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지원 등이었다. 통합운영학교 재정지원 사업에 이어 연구학교 전담기관을 운영하여 지원하였다.

아울러 시급한 제도 개선을 시도하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2010. 2) 통합운영학교 전환을 통폐합 유형으로 인정하여 재정지원을 제도화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시행 2012. 1. 6, 적용 2012. 1) 통합운영학교 학교장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0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를 개정하여 통합운영학교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 운영, 예산 편성 운영,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여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 통합운영학교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칭하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켰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6조에서는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 대상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 대상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1998년 2월 제정 당시에는 동 시행령 제56조(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다. ③통합운영학교에는 통합운영되는 학교에 각각 적용되는 교직원배치기준에 의한 교직원을 배치하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교육과정의 운영, 사무관리 기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본래 관할청의 임무에 교직원 배치기준, 예산편성과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 확대하였다.

중앙투자심의회의(중투심)는 2014년부터 학생수 감소 및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학교신설 심사를 강화하였다. 학교 신설규모는 2013년 141교(72.0%), 2014년 117교(54.9%), 2015년 102교(37.1%)로 학교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교육부, 2016.7 참조)을 알 수 있다. 이윽고 중투심의 통합운영학교 조건부 신설 승인으로 서울지역에서도 통합운영학교가 출현하였다. 그간 통합운영학교 지정은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수렴과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1면 1교 유지, 도서벽지학교는 통폐합 예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중투심의 결정은 통합운영학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헬리오시티 재개발단지에 2015년 가락일초 신설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2016년 가락중학교 신설을 요청하자 교육부 중투심은 2차에 걸친 재검토과정을 거쳐 2016년 4월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단지에 초·중 통합운영학교 신설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고밀도 아파트군의 형성으로 초등학생 9백여 명, 중학생 8백여 명의 추가적인 학생수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인근 학교로의 분산배치가 곤란하고 학생들의 원거리 학교배정으로 인한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다만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학교용지가 협소하여 학교와 인접한 공원시설(탄천유수지) 체육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까지 우여곡절 끝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운영 형태의 학교신설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임연기 외, 2018: 3).

통합운영학교 인센티브 지원 강화내용의 변화과정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1998년에는 본교폐교 수준인 5억원 지원으로 출발하였다. 2006년에 10억원으로 증액하고, 2010년에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도화하면서 시설폐쇄 20억원, 미폐쇄 10억원, 2016년에 시설 폐쇄 30억원, 미폐쇄 10억원 유지로 조정하였다(교육부, 2016. 7 참조). 폐쇄의 경우 본교 폐지와 동급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오고 있다.

Ⅲ. 통합운영학교 양적 현황과 특징

통합운영학교는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초·중 통합운영학교 58교, 중·고 통합운영학교 55교,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6교, 총 119교 수준이다. 초·중 유형과 중·고 유형 학교 수가 비슷하지만 근소하게나마 초·중 유형이 많다. 지정시기, 시도별, 유형별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기별 지정(해제) 현황과 특징

통합운영학교는 1998년 8교(1교 해제) 지정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99년에 53교(9교 해제)가 추가되어 총 61교로 늘어났다. 2000년 10교(1교 해제), 2001년 8교, 2002년 3교, 2003년 9교 등 출범 이후 6년간 91교(11교 해제)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5년까지 매년 0~2교 증가의 답보상태를 보였다. 2016년 이후 최근 6년간 중투심의 활약과 함께 26교가 증가하였다.

<표 1> 지정시기별 통합운영 학교 수

(단위: 교)

연도	초·중	중·고	초·중·고	지정(해제)	현재
1998	4(1)	4		8(1)	7
1999	19(2)	29(7)	5	53(9)	44
2000	6	4(1)		10(1)	9
2001	5	2	1	8	8
2002	1	2		3	3
2003	3	6		9	9
2004	1			1	1
2005	2			2	2
2006	1			1	1
2007		1		1	1
2008		1(1)		1(1)	0
2009	1(1)			1(1)	0
2010	1	1		2	2
2012	1	1		2	2
2013	1	1		2	2
2014		1		1	1
2015		1		1	1
2016		4		4	4
2017		2		2	2
2018	1	1		2	2
2019	2	1		3	3
2020	6	2		8	8
2021	7			7	7
전체	62(4)	64(9)	6	132(13)	119

※ 지정해제 학교 수는 해제시기가 아니라 지정시기 기준임

※ 지정시기와 개교시기는 다를 수 있음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를 재구성

2. 시도별 지정 현황과 특징

전국에서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에서 119교의 통합운영학교를 지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17교는 중투심의 조건부 설립, 100억원 이상 시설비 소요학교 심사결과에 따라 개교한 학교이다. 중투심사를 거쳐 통합운영학교로 설립 또는 개교한 학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충남이 20교로 가장 많고, 전북과 경북이 16교, 전남이 13교 순으로 많다. 관할청으로서 통합운영학교를 관리하고 지원하기에 매우 영세한 수준이다. 충남의 경우 총 20교라고 하지만 유형별로 구분하면 중·고 유형 14교, 초·중 유형 6교에 그치고 있다. 충남은 중·고 유형이 가장 많고, 초·중 유형은 경북이 9교로 가장 많다. 설립별로 보면 사립학교는 중·고 유형에서만 경북 4교, 충남 3교 총 7교이다.

<표 2> 통합운영학교 유형별 시도별 학교 수(2021.3.1.기준)

(단위: 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초·중	2 (2)	-	1 (1)	2 (2)	-	-	-	8 (2)	2 (1)	8 (2)	6	6	6	9	3 (2)	5	58(12)
중·고	1	3	-	1	2 (1)	2 (1)	1 (1)	-	4 (1)	-	14	9	7 (1)	7	3	1	55(5)
초·중·고	-	-	-	4	-	-	-	1	-	-	-	1	-	-	-	-	6
합계	3 (2)	3	1 (1)	7 (2)	2 (1)	2 (1)	1 (1)	9 (2)	6 (2)	8 (2)	20	16	13 (1)	16	6 (2)	6	119 (17)

※ 사립학교 수는 중·고유형에서 충남 3교, 경북 4교로 총 7교임

※ ()안은 학교신설, 중투심사를 거쳐 통합한 경우로 총 17교임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를 재구성

3. 유형별 현황과 특징

통합운영학교는 학교 단계의 조합 방식에 따라 ①초등학교와 중학교, ②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③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운영학교 유형은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지역에서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시도하고, 학교폐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립학교 모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시재개발단지에서 충분한 학교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부득이하게 채택하고 있는 운동장 공유형 통합운영학교 모형이기도 하다. 초·중통합운영학교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유형으로 정착한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분리 운영과 경쟁하는 대안적인 학교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교육과정 9년을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물론 통합운영일지라도 최초 6년은 초등교육, 다음 3년은 중등교육으로 분류한다. 초등과 중등 간의 교원자격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음 <표 3>에서와 같이, 시지역 7교, 읍지역 5교, 면지역 46교로 면지역 학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지역과 읍지역 학교는 학생 수가 평균 6백명 수준으로 규모가 크지만 면지역 학교는 평균 1백명 수준으로 영세한 수준이다. 기존의 지정학교와 중투심사 확정 학교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크다.

<표 3>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일반 현황 (2021.3.1.기준)

(단위: 개, 명)

구분		학교 수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학교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기존 지정	시지역							
	읍지역	2	222	18	42	111.0	12.3	5.3
	면지역	44	3,621	402	972	82.0	9.0	3.7
	전국	46	3,843	420	1,014	83.5	9.2	3.8
중투심사 확정	시지역	7	4,786	263	411	683.7	18.2	11.6
	읍지역	3	2,987	109	180	995.7	27.4	16.6
	면지역	2	1,177	52	92	588.5	22.6	12.8
	전국	12	8,950	424	683	745.8	21.1	13.1
전체	시지역	7	4,786	263	411	683.7	18.2	11.6
	읍지역	5	3,209	127	222	641.8	25.3	14.5
	면지역	46	4,798	454	1,064	104.3	10.6	4.5
	전국	58	12,793	844	1,697	220.6	15.2	7.5

※ 출처: 학교 알리미 자료 활용

둘째, 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합운영학교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체육, 국제 등의 특정 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운영하여 중등교육 계열성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강한 연계와 통합을 통하여 독자적 성격을 가진 학교로 존립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체육중·고등학교가 안정적인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 예술 분야 중·고 유형의 전망은 미지수이다. 다음으로 병설 사립 중, 고등학교들이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운영학교로 전환한 학교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 셋째로 공립 중·고 병설형 통합운영학교를 들 수 있다. 특정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존속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형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는 모두 중등교육 단계로 교원자격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성격이 상이하여 통합운영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규모 고등학교들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추가적인 교사의 확보 부담을 줄이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의 인력 풀제를 통해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이 가능한 통합운영학교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중·고 통합운영학교 역시 지역별로 학교규모의 차이가 크다. 시지역과 읍지역은 평균 학생수가 3백명~4백명 수준인데, 면지역은 160명 수준으로 영세하다. 지역과 상관없이 기존 지정 학교에 비해 중투심 확정 학교 규모가 더 작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일반 현황 (2021.3.1.기준)

(단위: 개, 명)

구분		학교 수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학교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기존 지정	시지역	6	2,417	96	347	402.8	25.2	7.0
	읍지역	14	6,062	279	678	433.0	21.7	8.9
	면지역	30	4,865	298	880	162.0	16.3	5.5
	전국	50	866	42	106	266.9	19.8	7.0
중투심사 확정	시지역	4	1,166	60	146	291.5	19.4	8.0
	읍지역							
	면지역	1	147	6	28	147.0	24.5	5.3
	전국	5	1,313	66	174	262.6	19.9	7.5
전체	시지역	10	3,583	156	493	358.3	23.0	7.3
	읍지역	14	6,062	279	678	433.0	21.7	8.9
	면지역	31	5,012	304	908	161.7	16.5	5.5
	전국	55	14,657	739	2,079	266.5	18.5	7.1

※ 출처: 학교 알리미 자료 활용

셋째,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통합운영학교 유형이 있다. 도서벽지처럼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이 제한적인 지역에 적절한 유형이다. 현실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초, 중, 고 통합운영학교의 지정이나 설립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외국에서처럼 극소규모 사립 초·중·고 유형의 존립도 현실성이 없다. 부설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현존하지도 않는다. 특수학교와 대안학교는 학교급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으나 이는 통합운영학교의 대상과 범위에서 벗어난다.

시지역과 읍지역은 없고, 면지역에서만 6교에 그치고 있다. 학교당 학생수도 평균 67명으로 지극히 영세한 수준이다. 6교에 초등학생은 평균 30명, 중학생은 평균 16명, 고등학생은 평균 20명이 재학하고 있다.

<표 5>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일반 현황 (2021.3.1.기준)

(단위: 개, 명)

구분		학교 수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학교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기존 지정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6	406	66	212	67.7	6.2	1.9
	전국	6	406	66	212	67.7	6.2	1.9

※ 출처: 학교 알리미 자료 활용

Ⅳ. 통합운영학교의 쟁점

1. 학교규모의 적정화

통합운영학교의 핵심 가치는 ‘학교규모의 적정화’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담보하는가. ‘학교규모의 적정화’는 우리나라에서 학교통폐합 정책의 당위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학교통폐합 정책에서 통합운영학교의 뿌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국민의 향학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전면적인 교육기회 확대 정책을 폈다. 농촌지역도 예외 없이 오지벽지까지 학교를 만들고 2부제 수업, 콩나물교실로 학생수요의 팽창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로 농촌인구는 급격한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농촌인구 감소는 농촌학교 학생수 감소로 이어졌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학생 유출이 인구이동보다 한발 앞서 이루어졌고, 자녀 교육 때문에 이농을 결행한 가정도 적지 않았다. 차츰 농촌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역시 농촌학교는 한국교육의 변방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1982년부터 학교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90년대 들어 특히 농촌지역에서 학교통폐합을 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당시 농촌 교육정책은 곧 통폐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통폐합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1999년도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면서 강도 높게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본교 폐지, 분교장 폐지, 분교장 개편 등과 함께 통합운영학교도 통폐합 유형의 하나로 출발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 감소로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과소규모 학교가 출현하고,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자료(2018)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970년에 4.53명에서 2002년에는 1.3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0.98명으로 줄어들어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지속화될 전망이다.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 표현도 나온다. 학교규모의 적정화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다.

학교통폐합 정책목표는 학교 수 줄이기와 학교규모의 영세성 극복에 있다. 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동일한 학교 급끼리의 ‘횡적 통합’은 통학구역을 넓힘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교 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반면에 상이한 학교급의 ‘종적 통합’은 통학구역을 확장시키지 않으면서 학교 수를 줄일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학교가 횡적 또는 종적으로 통합하면 그 만큼 학교 수가 줄어들고 학교규모는 커진다.

시설폐쇄형 통합운영학교 지정은 본교폐교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왔다. 통합운영학교 지정도 본교폐교와 동급의 학교 수 줄이기 실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본교 폐지 실적이 1982년부터 2020년까지 1,429교에 이른 반면에 1998년부터 통합운영학교 지정에 의한 학교 수 줄이기 실적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그리고 통합운영학교는 학교의 종류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목적인 학교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통합운영학교는 동일한 학교급의 학교 통폐합과는 달리 학교규모의 확대는 보장하지만, 학년별 규모 또는 학급규모의 확대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상급학교 폐교, 이전, 자진 희망에 따라 초기 지정학교 중에서 13교 정도가 지정해제 상태이다. 통합운영학교의 지정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조치였고, 해제도 상급학교 학생수 소멸로 인한 자동 해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급학교 폐교에 따른 지정해제 경우 학교 수는 줄어들지만 학교규모는 영세한 수준으로 복귀한다.

우리나라 농촌의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대부분 100명 이하의 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폐교에 직면한 경우가 허다하다. 지정해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통합운영학교 규모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가 쟁점이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임연기 외, 2013 a)에서는 통합운영학교 신규지정 요건으로 통폐합 대상학교가 아닌 학교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기는 하다. 과소규모의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운영학교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학교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권고기준을 살펴보자. 이전에는 읍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였는데, 2016년부터는 면·도서·벽지 지역은 60명 기준을 유지하였고, 읍지역은 이와 분리하여 초등은 120명 이하, 중등은 180명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도시지역은 종전 200명 이하에서 초등은 240명 이하, 중등은 300명 이하로 역시 권고기준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복식학급 운영학교,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 등을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으로 신설하였다. 현재의 농촌 학교규모 수준과 앞으로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신규지정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 중심형 대형 통합운영학교 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9년 아오모리현에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7개교를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로 통폐합하고, 이 두 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형 초·중 일관학교로 통합한 사례가 있다(임연기 외, 2012: 95).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히 농촌지역에서 많은 학교가 극소규모 수준이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복수 학교 간의 통합운영학교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시설비 소요가 크다는 점이 단점이다.

요컨대, 통합운영학교가 학교규모의 적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려면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학교급 간 교원의 교차수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의 통합운영학교 지정 요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학제 유연화

통합운영학교의 핵심 가치를 ‘학제 유연화’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경직적인 학제의 유연화에 기여하는가.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3년간 미군정기의 6-6-4제에서 시작하여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말에 공포한 「교육법」에 의해 국민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6-4-3-4 학제를 마련하였다. 동법 제102조에서 중학교의 수학연한을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이 시점의 학제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1951년의 2차 교육법 개정에서 6-3-3-4의 현행 학제를 확정하였다(김종철, 1976: 116-117).

이후 지속적인 학제개편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보완은 있었으나 기본 학제의 틀은 변동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학제개편론 그리고 학제의 문제는 제도 그 자체보다 운영의 결함에 있다고 보는 반대론이 맞서왔는데, 개편론자들이 주장하는 대안의 핵심은 초·중·고등학교 각 단계의 연한과 연결, 접속관계의 개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부 개편안에서는 초등교육 기간의 연장,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단계의 통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는 통합운영학교 도입의 당위성과 맥을 같이 한다.

통합운영학교는 학제의 유연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통합운영학교의 장점은 학교급별 단계성이 발달한 우리나라 학제에서 학교급별 교육의 연계와 일관성, 더욱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또한 통합운영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시점 즉,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겪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른바 중1 문제, 고1 문제를 해소하여 학생들의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교진학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각오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연령층이 다양한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학교폭력 등 하급생들의 피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단선형 학제로서 학교급별 단계성을 강조하고, 학교 단계별 계열성 확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가운데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초교육과정을 학교급 간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된 중등교육의 다양화, 예술, 체육, 국제 등 특정 분야의 계열성 심화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교육의 일관성 유지, 학교급 간 연계성 강화,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교육의 설계와 지원을 통하여 학생의 성장과 적응을 적극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통합운영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들¹⁾은 학제 유연화 차원에서 통합운영학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특히 초·중학교 유형에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교급 간 교육경험의 연속성 증진’에 대하여 ‘그렇다’에 71.5%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에 11.3% 응답하였다. 통합유형별로 보면 초·중학교(77.0%), 중·고등학교(67.7%), 초·중·고등학교(58.3%) 순으로 ‘학생들의 학교급 간 교육경험의 연속성 증진’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생들의 상급학교 입학에 따른 불안감 해소’에 대하여 ‘그렇다’에 71.6%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에 13.3% 응답하였다. 통합유형별로 보면 초·중학교(77.0%), 중·고등학교(67.7%), 초·중·고등학교(58.3%) 순으로 ‘학생들의 상급학교 입학에 따른 불안감 해소’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이후 적응 수월(중1 또는 고1 부담 완화)’에 대하여 ‘그렇다’에 81.4%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에 6.6% 응답하였다. 통합유형별로 보면 중·고등학교(83.1%), 초·중학교(82.5%), 초·중·고등학교(66.7%) 순으로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이후 적응 수월’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1) 임연기 외(2018)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모델 및 운영체제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2018년 8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98교 가운데 80교가 조사에 응하였으며(응답률 82.4%), 학교유형별로는 초·중학교 32교, 중·고등학교 44교, 초·중·고등학교 4교이었다. 응답학교별로 소속 학교급별 교무부장, 연구부장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는 초·중학교 74명, 중·고등학교 65명, 초·중·고등학교 12명이었다.

‘학교급 간 학생들에 관한 정보공유’에 대하여 ‘그렇다’에 85.5%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에 6.6% 응답하였다. 통합유형별로 보면 중·고등학교(89.3%), 초·중학교(85.1%), 초·중·고등학교(66.6%) 순으로 ‘학교급 간 학생들에 관한 정보공유’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6-3-3-4제의 학제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수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임연기 외, 2020: 120). ‘학교교육에 관한 의식조사(2003)’, ‘의무교육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라 일본의 현행 학제를 도입한 1948년과 비교하여 신체적 발달이 2~3세 빨라지고 중학교 단계 진학 이후 ‘수업 이해도’와 ‘학교생활 즐거움’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일본 구레시에서는 학생의 심신 발달의 변화, 문제 행동의 발생률, 사고의 발달단계를 근거로 의무교육 9년간을 ‘4·3·2’로 구분하여 지도하고 있다. 이 4-3-2 구분에 의한 지도는 현재 구레중앙학원인 구 니코우(二河) 중학교가 연구학교의 위촉을 받아 수행한 초·중일관교육의 연구에 의거한 것이다. 학생들의 심신발달, 학생지도 상의 여러 과제, 학력향상 등의 특징을 고려할 때 6-3제보다 4-3-2제로 구분하여 지도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임연기 외, 2020: 140-141).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중학교를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이런 입장은 중학교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학생의 발달단계 상 중학교 학생들이 재학하는 11~13세는 그들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초등학교와 분리하여, 또는 고등학교와 분리하여 별도의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학교 단계의 독자성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임연기, 2016). 이는 통합운영학교가 기존의 학제를 대체하기보다 선택적 대안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학교급 간의 교육과정 통합

현행 법령은 학교급 간의 교육과정 통합을 추구하지 않고서도 통합운영학교의 설치를 조장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장치이다. 그럼에도 각기 다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물리적 통합에 그쳐 병설학교와 다를 바 없다면서 교육과정의 통합을 찬성하는 주장과 학교급이 다른 교육과정을 화학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무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급 간의 교육과정 통합이 필요한가.

통합운영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²⁾들은 ‘학교급 간 교육과정 통합운영 곤란’에 대하여 ‘그렇다’에 44.7%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에 41.4% 응답하였다. 통합유형별로 보면 초·중·고등학교(58.3%), 초·중학교(55.4%), 중·고등학교(29.7%) 순으로 ‘학교급 간 교육과정 통합운영 곤란’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교육과정 통합이 곤란하다는 응답비율이 학교급 간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강한 초·중 유형에서 높고, 연속성이 약한 중·고 유형에서 낮게 나타났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면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 간의 교육과정 통합이 곤란한 이유는 첫째, 교육과정 통합이 왜 필요한지, 교육과정 통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여러 제약 속에서 지엽적인 교육과정

2) 각주 1) 참조

통합 시도가 올바른 방향인지 물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도 없다는 지적이다. 둘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간의 교원자격 분리와 교직문화 이질성 때문이라고 한다.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며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적 여건이 취약하다고 한다.

셋째, 학교수준에서 학교급 간의 교육과정을 통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통치구조로부터 점차 지방분권적인 교육과정체제로 이행해 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②항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교육과정 의사결정 구조가 형식적으로는 분산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권형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교과 편제나 수업시수뿐만 아니라 교과서가 교사의 수업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역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①항에 따라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한 상황에서 교육개혁위원회(1996: 38-39)는 신 교육과정 편제 도입의 일환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체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 중에는 학교급별 개념이 아닌 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을 표방한 통합운영학교 제도의 당위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급 간에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요컨대, 통합운영학교의 정체성은 학교급 간의 교육과정 통합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과정의 통합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급 간 교육과정 통합의 제 조건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통합운영학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교육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를 우선하여 잉태한 제도라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통합운영학교가 재정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가. 비금전적 가치의 산출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예산에 한정해서 간략히 살펴볼 수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한 사람의 교장을 배치하고,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관리한다. 아울러 운동장, 강당, 급식실, 특별교실 등을 부분적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다. 그만큼 재정적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학교부지 확보가 곤란한 형편에서 학교 운동장의 공동활용은 엄청난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예산은 학교급별 산출공식에 의해 합산하여 배분하고, 교직원도 학교급별 인원을 합산하여 배치하기 때문에 재정적 효율성이 실제로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초등학교 자격을 가진 교원은

중등학교 정규수업을 담당할 수 없고, 그 반대로 중등학교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은 초등학교 정규수업을 담당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교원의 공동 활용차원에서 재정적 효율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작지 않은 재정 지원금이 있고, 시설 증·개축 소요경비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통합운영학교의 가치를 사회적 요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 통합운영학교는 시설폐쇄형의 경우 1개 학교를 폐교시킨다. 학교는 사회발전의 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규모일지라도 학교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령 아동이 없는 주민들도 학교에 대한 강한 관심을 기울이고, 교사의 경우도 도시보다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학교가 있는 촌락과 학교가 없는 촌락은 인구 변화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며, 학교가 없는 촌락은 지역사회의 주변부에 속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를 폐교시킬 때 인근 지역의 학교가 아닌 경우 지역 간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학교통폐합은 지역공동체의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학교가 어차피 모든 촌락마다 소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학교통폐합은 몇 개의 소규모학교가 소재한 촌락으로 분할되어 서로 단절된 마을공동체를 규모가 큰 지역공동체로 통합하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상호 교류의 지평을 넓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도 한층 긴밀하고 강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1면 1학교 이상의 조건은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통합운영학교는 교육연한이 길어지고 유형에 따라 학부모, 학교와 상호작용하는 지역사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강화하고, 지역과 장기적 안목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며, 상호발전할 수 있는 터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학교와 가정, 마을이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대표성과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도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적어도 중학교 단계까지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간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통합운영학교를 설립하여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요컨대, 통합운영학교의 교육적 이외의 가치, 즉 경제적,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통합운영학교 지정(설립) 의사결정

통합운영학교의 지정 또는 설립을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기존의 학교를 통합운영학교로 지정하려면 학교통폐합의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학교통폐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수렴과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1면 1교 유지, 도서벽지학교는 통폐합 예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통폐합 정책은 '만족화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임연기, 2021: 342). 통폐합 관련

각종 자료의 수합과 분석, 전문가들의 진단과 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면서 완벽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민투표에 의한 폐교 결정으로 간단하면서도 폐교조치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학교의 문을 닫는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동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족화 수준에 따라 통폐합을 결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합리모형에 근거한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일부 학교는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통폐합이 용이하지 않아 영세한 소규모 형태로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반면에 전반적인 학생수 감소 추세 속에서 도시 재생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 및 학생 이동으로 인하여 학교 신설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수는 줄어들지만 학교수는 늘어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완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 총량제가 등장하였다. 학교 총량제 방침에 따라 통합운영학교 조건부 학교신설이 늘어나고 있다(임연기 외, 2020: 13).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2016년 4월 서울 헬리오시티(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단지에 초·중 통합운영학교 신설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기존 학교의 통합운영학교 지정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지역주민이고, 신설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중투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 지역주민은 만족화 관점에서 중투심은 위원회 명칭 그대로 투자적 관점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학생수가 급감하는 추세 속에서 누가 통합운영학교 지정과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V. 통합운영학교의 발전방향과 전략적 과제

1. 선택적 9년제 의무교육학교 법제화

현재 통합운영학교가 겪고 있는 혼란과 문제의 근원은 미비한 법적 근거에서 출발하고 있다. 초·중등 학제는 6-3-3제, 교육과정 단계는 의무교육과 이에 바탕을 둔 고등학교 과정으로 구분하는 9-3제이고, 교원 양성·자격체제는 초등, 중등 6-6제이다. 이와 같은 학교제도와 교육과정 단계, 교원공급체계 간의 불일치는 학교급 간 분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합운영학교가 정상적으로 무리 없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학교급 간 연계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 통합운영학교를 ‘학교의 종류’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식적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학교의 종류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각급의 학교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대통령령에서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학교급의 차이를 인정한 채로 관할청의 관리지침,

학교관계자들의 리더십과 역량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화학적으로’ 단일의 학교가 아니라 각급의 학교가 ‘물리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교직원 겸임발령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단히 기형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으로는 통합운영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담보적 수준을 벗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 종류의 하나로 통합운영학교(학교 급을 통합한 학교)를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름지기 ‘통합운영학교’를 ‘통합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통합운영학교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의무교육의 온전한 완성을 위한 9학년까지 국민 기초, 기본 교육의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9년제 의무교육학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교를 현행 학제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단계 구분과 병행하여 9학년 의무교육과 그 이후로 나누어 9년제 의무교육학교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보통 만15세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발달을 고려한 조치이기 하다. 전통적으로 어른티를 내는 아이라는 의미의 성동(成童)에서 이전에는 생활 속의 기본을 배우는 소학을 그 이후에는 학문적·사회적인 안목을 넓히는 대학을 공부한 것과 닮아 있으며, 핀란드를 비롯한 OECD 각국이 9학년까지는 기초, 기본 공통필수 교육과정을 부과하는 것과 닮아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운영은 기본적으로 9학년(15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 재구성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임연기 외, 2012: 167).

9년제 의무교육학교의 전면적인 도입은 학제개편에 해당하여 지난한 과업이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선택적으로 의무교육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운영학교 유형 가운데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통합의 명분이 강한 대신에 초등과 중등으로 확고하게 분리된 교원자격체제로 인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명분도 살리고 제약요인도 일거에 풀 수 있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9년제 의무교육학교는 9년간의 일관된 국민기초공통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기본적으로 전기 초등학교 과정과 후기 중학교 과정으로 구분하여 초·중 각급학교 교육과정 편성기준, 교원배치 기준 등을 준용하되 다양한 특례 사항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학교장, 하나의 교직원 조직으로 겸임 발령은 불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무교육학교를 학교의 종류로 명시하고, 제2장 의무교육에서 제12조 의무교육학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의무교육학교(초·중학교)를 추가하여 개정하도록 한다.

2. 통합운영학교 프로그램 모델 정립

통합운영학교의 존재이유, 그리고 정체성을 학교급 간의 자원, 조직, 활동 등의 통합에서 찾아야 한다. 물론 학교규모의 적정화 방편으로 개별 학교의 통합운영을 추구할 수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교급 간의 다양한 연계와 통합을 바탕으로 일관된 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단순히 적정 규모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병설학교와 차별성이 없고, 통합운영학교 제도를 존속시키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이유가 없다. 통합운영학교는 자칫하면 영세한 복수의 학교가 하나의 지붕 밑에 병존하는 교육적으로 매우 열악한 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단위학교 수준에서 학교급 간의 연계와 통합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통합운영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급 간의 연계, 통합 계획과 실행은 개별 학교의 자발적, 창의적 노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학교가 획일적인 모델과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위학교가 학교발전의 주체로서 학교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여 내발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급 간의 통합운영 모델은 단위학교가 참조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적인 지침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2010년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사업 추진계획에서 <표 6>과 같은 세 가지 프로그램 유형³⁾을 제시한 바 있다. 제1영역은 교육자원 연계·활용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공동·활용, 행정·사무의 통합, 제2영역은 교육활동 통합·운영으로 교과와 비교과 교육과정, 방과후활동 통합·운영, 각종 학교행사 통합·운영, 제3영역은 학습집단 통합·구성으로 무학년제, 집중이수제 등을 예시하였다(임연기 외, 2013 b: 30).

<표 6> 교육부 재정지원사업(2010~2012) 통합운영학교 육성 프로그램 유형

영역구분	영역 특성	내 용
제1영역	교육자원 연계 활용	▪ 인적 자원의 공동·활용 ▪ 물적 자원의 공동·활용 ▪ 행정·사무의 통합
제2영역	교육활동 통합(공동) 운영	▪ 교과 교육과정 통합·운영 ▪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운영 ▪ 방과후활동 통합·운영 ▪ 각종 학교행사 통합·운영
제3영역	학생집단 통합 구성 (학사 운영의 통합)	▪ 무학년제 ▪ 학점이수제 ▪ 집중이수제 ▪ 블럭타임제

※ 제3영역(학생집단 통합 구성 프로그램)은 기본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학교의 경우 권장사항이며,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학교는 필수사항임

※ 출처: 임연기 외(2013 b). 30.

통합운영학교 육성 프로그램은 크게 연계모델과 통합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연계모델은 학교급 간의 기계적(물리적) 접합, 통합모델은 유기적(화학적) 결합에 초점을 둔다. 예시적으로 프로그램 모델 유형별로 세부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표 7>, <표 8>과 같다.

3) 프로그램 유형별 실천사례는 임연기 외(2013 c), 학교급 간 교육과정 연계 실천사례는 백남진(2018) 참조.

<표 7> 학교급 간의 연계모델 주요 프로그램 내용(예시)

구 분	주요 프로그램 내용
학교급 간 교육과정 연계강화	▪ 상급학교 사전 적응 프로그램 ▪ 학교급 간 교육과정 기준의 연계강화 실천
인적 자원 공동활용	▪ 특정 교과 교차수업 ▪ 영양교사·보건교사 등 겸임 ▪ 원어민교사 공동활용 ▪ 지역사회 인사 공동활용
물적 자원 공동활용	▪ 각종 시설 공동활용 ▪ 교육기자재 공동이용 ▪ 기숙사, 통학버스 등 공동활용
행정·사무의 일원화	▪ 단일 행정실 운영 ▪ 행정업무 겸임 ▪ 단일 업무, 기록물 관리 체제 구축

<표 8> 학교급 간의 통합모델 운영 주요 프로그램 내용(예시)

구 분	주요 프로그램 내용
교과 교육과정 통합 운영	▪ 특정 교과 무학년제, 학년군제, 집중이수제 운영 ▪ 현장 체험학습 통합운영
비교과, 비정규 교육과정 통합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공동 프로그램 ▪ 생활교육, 멘토링 공동 프로그램 ▪ 방과후, 토요 공동 프로그램(토요 틈새학교, 토요 스쿨)
학교 조직 통합운영	▪ 통합 교원업무 조직, 교과협의회 ▪ 통합 교직원회의, 연수 ▪ 통합 학생회 ▪ 통합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각종 학교행사 통합 운영	▪ 통합 입학식·졸업식 운영 ▪ 통합 학교축제, 체육대회, 수학여행 운영

<표 7>에서와 같이 학교급 간 연계강화 모델을 상정할 수 있다. 연계란 기계적(물리적) 접합으로서 학교급 간의 원활한 접속관계에 초점을 둔다. 연계강화 모델에서 가장 주목할 프로그램은 상급학교 적응 프로그램과 교과 교차수업이다. 우선 상급학교 사전 적응지도 차원에서 ‘초1 프로그램’은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단계에서 아동들의 학교생활 준비 부족 현상에 착안한다. 유치원 재원 시 자유롭고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과 보육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집단 규율 등에 익숙하지 못하여 부적응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구안할 수 있다. ‘중1 프로그램’은 교육활동과 생활교육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도방법 차이에 착안한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이행할 때 발생하는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한다. ‘고1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이다. 학교급별 분리학교에서도 학교급 간의 연계교육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통합운영학교에서는 실천적 지식과 방법을 축적할 수 있다. 특정 교과 교차수업은 학교급 간의 인적 자원 공동활용에서 핵심 프로그램이다. 소규모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적정 규모화와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초등, 중등 분리 교원자격 체제에 따라 중고 유형에서는 제약이 없으나 초·중 유형에서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표 8>에서와 같이 학교급 간의 통합운영 모델을 상정할 수 있다. 학교급 간의 경계를 넘어 교육과정, 교육활동, 각종 조직의 다양하고 유기적(화학적)인 결합을 시도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과정의 통합이 핵심이다. 경직적인 학교급별 수업연한, 교과편제, 교과별 이수시간 운영에서 벗어나 학년제, 학년군제, 블록타임제, 집중이수제, 무학년제 등을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급 간의 통합적 교육과정 편성과 학습집단 구성이 필요하다. 정규교과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지만 학교재량으로 설정한 특색있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학교급 간의 교육과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에서 지역 권한과 교사 자율성 강화, 학생 개별성과 다양성 지원 등 교육과정의 분권화를 표방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국가 교육과정 규정의 대강화와 최소화, 그리고 학교급 간 교육과정 기준의 단절, 비약, 중복, 후퇴 사항 점검과 방지, 교과서 자유발행제 단계적 이행 등이 필요하다.

3. 초·중등 학교급 간 교차수업을 보장하는 탄력적 교원자격제도 도입

통합운영학교의 상징은 학교급 간의 교육과정 통합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 통합운영 학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통합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학교급 간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자격있는 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교원은 물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 그리고 교육행정당국의 장학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초등과 중등으로 확연하게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진다. 초등과 중등 간에 깊게 놓여 있는 경계의 뿌리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에는 분리했지만 2차 대전 이후 점차 하나의 기관에서 교원을 양성해가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초등과 중등 교원을 주로 하나의 기관이 아닌 각기 다른 기관에서 구분하여 양성해 오고 있다. 초등과 중등간의 교원자격제도도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급 간 교육과정 통합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통합운영학교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원을 확충하기 위해 세 가지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교원양성과정에서 복수 학교급 교원양성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다. 여건을 갖춘 교원양성기관에서 현재의 복수 학교급 교원양성과정 비율을 확대하고, 희망하는 전국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해당 과정의 신설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교육적 특수성(교육 대상,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양질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교원양성기관들이 복수 학교급 교원양성 비율의 확대를 수용하고 지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격소지자가 임용고사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교직에 입직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통합운영

학교 교원임용을 위해 복수 학교급 교원자격자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임용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저출산 시대를 맞아 교직수요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으로 복수 학교급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일정한 가산점(만점의 10% 정도)을 부여할 수도 있다. 즉, 양성규모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복수 학교급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확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 문제이다.

둘째,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통합운영학교 현직 자격연수과정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양질의 통합운영학교 교직 이수과정을 운영하여 복수 학교급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직의 초등교원들은 중등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다시 중등교원들에게는 초등교원들의 교직과정을 집중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현직 자격연수과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등교사의 초등교사 임용을 위한 특별연수과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 경험을 되살려 연수과정을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과연 복수 학교급 교사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교사와 통합운영학교에 근무를 자원할 교사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점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이 의무적으로 또는 수요에 따라 복수 학교급 자격 연수를 이수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통합운영학교 자격교사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자격연수과정을 통해 학교급별 차이를 이해함은 물론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운영학교의 육성에 뜻이 있는 현직교사들이 자격이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일본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현직교원들이 쉽게 다른 학교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현직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연수대상은 교직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한다.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22학점이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또는 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에서 3년 근무 경험이 있으면 대학 등 연수기관에서 14학점 이수로 취득 가능하다.

<표 9> 일본 복수 학교급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현직연수 학점 이수 기준

취득하려고 하는 자격증의 종류		초등학교 교사 2급 자격증			중학교 교사 2종 면허장			
소유가 필요한 자격증		중학교 교사 보통 자격증			초등학교 교사 보통 자격증			
양호한 성적으로 근무한 최저 재직 기간		3						
취득하려고 하는 자격증의 학교급 근무 기간		0	1	2	0	1	2	3
이수가 필요한 과목 및 학점	교과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관한 과목				10	7	5	5
	각 교과와 지도법에 관한 과목	10	7	5	2	2	1	1
	도덕 이론 및 지도법							
	학생지도 이론 및 방법	2	2	1	2	2	2	1
	교육상담 이론 및 방법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 이론 및 방법							
합계		12	9	6	14	11	8	7

※ 출처: 교육직원면허법 제6조 별표8, 교육직원면허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8조의 4를 참고로 재구성. 임연기 외(2020).

137 재인용.

각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 이수 기준을 보면 <표 9>와 같다.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24학점이 필요하지만 중학교 또는 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에서 3년 근무 경험 있으면 12학점 이수로 취득 가능하다. 수강생의 부담 경감을 고려하고 있다. 대학, 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강습이나 통신교육을 통해 소정 학점을 이수하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교육직원검정(인물, 학력, 실무 및 신체에 관한 증명서 제출)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셋째, 교원자격제도를 부분 개편하여 일부 교과에 한정하여 초등과 중등의 구분 없이 교원자격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과목은 복수 학교급 교원자격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외국어, 예체능, 기술 등의 과목은 초등과 중등 구분없이 양성하여 자격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양성과정에서 일부 과목에 한정해서라도 초·중등 통합 자격을 가진 교사를 배출한다면 통합운영학교의 교차수업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 현직 자격연수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과 중등의 교원자격을 엄격하게 인정하되 과목에 따라 학년에 따라 자격구분을 조정하고 있는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미국 뉴욕주의 교사 자격증별 교육활동 허용 학년

주(state)	초등교육 자격증 허용 학년	중등교육 자격증 허용 학년	
		전공 과목	허용 학년
New York	초등교원자격증: k-6	중학교단계 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9학년
		중등 영어, 수학, 사회, 과학	7-12학년
		예체능, 상담, 외국어, 특수교육 등	PK-12학 년

※ PK와 K는 각각 유치원 전(Pre-Kindergarten), 그리고 유치원(Kindergarten) 학년을 나타냄.

※ 출처: <http://www.highered.nysed.gov>

뉴욕주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10개 주의 교사 자격증에 따라 교육 활동을 허용하는 학년 범위를 살펴본 결과⁵⁾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10개 주에서 공통으로 교원이 되려면 주에서

4) 10개 주(state) 중 7개 주는, 4~8학년 혹은 5~9학년과 같이 중간 단계 학년-한국의 학령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하 중학교 단계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 간 임금 격차, 교육 환경 차이 등의 문제로 중학교 교사 수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격증은 일반적인 중등교육 교과 자격증과 비교해 가르칠 수 있는 학년의 범위가 제한되며, 취득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 또한 다르며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부 주의 경우 중학교 단계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교원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과를 가르치는 교육 활동을 허용한다. 이를 운영하는 방식은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중학교 단계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원에게 초등교육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펜실베이니아 주)가 있지만, 중학교 단계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 초등 교육과 관련한 교육 과정 일부를 교원양성기관(대표적으로 대학)에서 이수해야 초등교육 활동을 허용하거나(일리노이주), 초등교사 자격증 시험을 추가로 통과해야 하는 제한(뉴저지주)을 두는 곳도 있다.

5) 각 주(state) 교육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였으며, 각 주의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음. 캘리포니아: <https://www.ctc.ca.gov> 텍사스: <https://tea.texas.gov/>, 뉴욕: <http://www.highered.nysed.gov>, 플로리다: <http://www.fldoe.org>, 일리노이: <https://www.isbe.net>, 오하이오: <http://education.ohio.gov>, 펜실베이니아: <https://www.education.pa.gov>, 미시건: <https://www.michigan.gov>,

인증하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교원자격증은 자격증별로 가르칠 수 있는 특정 학년, 그리고 특정 과목을 제한하며, 그 범위는 주(state)의 교육법에 따라 정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초등교육 교원자격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K-6 학년을 가르칠 수 있으며, 학급담임제에 의한 다양한 과목(‘종합 과목’)의 교육활동을 허용한다. 주요 주지 과목(영어, 수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에 대한 교원자격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6-12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과목을 가르칠 수 있지만, ‘종합 과목’을 가르치는 초등교육 활동은 제한한다.

예체능, 기타 과목(예를 들어, 문해, 가정, 기술, 건강 등), 외국어, 특수 교육 등의 과목에서 자격을 갖춘 교원의 경우 초등, 중등 구분 없이 모든 학년에 대한 교육활동을 허가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담당 과목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급담임제로 다양한 과목(종합과목)을 가르치는 초등 교육활동은 제한한다. 교육행정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모두 임용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전 과목을 가르치는 초등교육 자격증과 단독 과목을 가르치는 중등교육 자격은 분리하고 있으며, 서로는 교차하여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일부 과목은 초등과 중등 구분이 없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4. 농촌형 초·중 통합운영학교 집중 육성

‘선 여건조성, 후 확대운영’ 차원에서 읍면지역 소규모 통합운영학교를 집중 육성한다. 대상은 초·중학교는 46교, 초·중고는 6교 총 52교이다. 학교당 학생수가 초·중학교는 80명, 초·중고는 67명 수준으로 영세하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아주 소중한 학교들이다.

첫째, 교육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읍면 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통합운영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단계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학교에서 나타나지 않은 긴장감을 해소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비를 3년간 지원한다. 이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관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둘째, 읍면지역에서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지정 추가 확대를 위하여 교육부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신규지정 시 소규모 통폐합 대상이 아닌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지침을 해제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1면 1학교의 경우 예외 조치한다. 장차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하면 인근지역 초·중학교와의 통합을 시도한다. 학교 통합보다는 지역 통합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셋째, 시설폐쇄형 통합운영학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부모 또는 주민의 동의를 중요하게 고려하되, 해당 교육지원청 전문직, 학교 관리자, 지역 주민들로 통합운영학교지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검토와 중재를 거치도록 한다.

넷째, 시설폐쇄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시설을 폐쇄하지 않은 연계형 통합운영학교를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농어촌 학교는 1면 1교, 또는 2면 1교 시설폐쇄 일체형이나,

조지아: <https://www.gapsc.com>, 뉴저지: <https://www.nj.gov>.

6) 장덕호(2016)에서 학교급 간의 교직원화 이질화에 따른 여러 갈등사례 참조. 박효숙(2016)에서 학교급 간의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례 참조.

시설미폐쇄 연계형 초·중통합운영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다섯째, 모든 통합운영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편성, 교원 확보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5. 통합운영학교 지원 확대 방안 강구

통합운영학교 활력화를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첫째, 통합운영학교의 교직원 인사 특례 조치를 강구한다. 학교장은 공모제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공모제 임용과정 속에서 통합운영학교를 이끌어갈 비전, 학교급 간의 교육과정 통합 방안, 교직 전문공동체 구축 방안, 학생 생활교육 방안을 엄정히 고려한다. 이때 통합운영학교 재직경험을 중시한다. 통합운영학교에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 통합운영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 초등과 중등 교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감, 행정실장도 이에 준하여 배치한다. 교직원 전보의 경우에도 통합운영학교 재직 교직원의 일상적인 근무연한을 예외 적용한다.

둘째, 통합운영학교 관계자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전국 통합운영학교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류, 선도적 사례 공유 등의 활동을 활성화한다. 통합운영학교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합운영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연수, 그리고 신입 교직원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통합운영학교 전문연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통합운영학교의 제도적, 운영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문 컨설팅, 연수를 담당하도록 한다.

셋째, 소규모 통합운영학교에서 학교급 간의 교차수업을 적극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통합운영학교 한지 교원복수자격제도를 운영한다. 국어, 수학 교과를 제외하고 중등교사 중에서 초등학교에서 교과전담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 과학, 영어, 예체능, 실과 등의 교과, 초등교사 중에서 일부 중등학교 교과는 일정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학교급간 교차 수업이 가능한 자격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따라 학교급 간의 복수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 팀티칭에 의한 교차수업을 허용하고, 수업시수로 인정하며,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팀티칭 경험을 자격연수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넷째, 통합운영학교는 지정 최초 3년간 연구학교로 지정하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생활교육, 학사관리의 통합운영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보직교사를 보임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자문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초기 지정 이후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기간에는 학교급 간 일종의 ‘코디’ 전문인사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섯째, 단일의 정보관리체제를 정비한다. 2023년 개통 예정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작업에 관여하여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모니터링한다. 통합운영학교 업무관리, 기록물 관리, 회계처리, 물품 및 재산관리 등 행정의 편의성 증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Ⅵ. 결론

통합운영학교는 단순한 학교규모 적정화를 넘어서서 경직적인 단선형 학제의 유연화 제고 차원에서 학교급 간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의 성장과 적응에 비교우위를 갖는 학교로서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시설과 교원의 공동활용 바탕 위에서 학사관리의 통합, 나아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학교급별로 엄격하게 구분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연계하여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활동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일부 교과교육에서도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무학년제, 혼합적 학습집단 편성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 통합을 뛰어넘어 화학적 통합을 지향함으로써 학생의 수준과 적성,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적인 학교모형으로 존립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이래 최초 지정 23년의 역사를 가진 통합운영학교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병설학교 수준에 머물고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학생수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학교환경, 중투심의 활약은 오랜 잠을 깨우고 있다. 통합운영학교의 발전비전은 학교규모의 적정화에서 대안적, 선택적 학제로 자리잡는 데에 있다. 선택적 9년제 의무교육학교 법제화를 바탕으로 법적 위상 제고, 학교급 간의 교육과정 통합, 이를 뒷받침하는 교원자격제도의 유연화가 통합운영학교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참고 문헌

- 교육개혁위원회(1996. 2. 9).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
 교육부·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3). 2013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 컨설팅.
 교육부(2016.7). 적정규모학교 육성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교육부·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3). 2013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 컨설팅.
 김종철(1976). **세계 안의 한국교육**. 서울: 배영사.
 박효숙(2018). 유치초중학교 초중통합학교 운영사례. 서울형통합운영학교연구팀 제3차 워크숍자료집. 109-126.
 백남진(2018). 한국에서 학교급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과제. 서울형통합운영학교연구팀 제2차 워크숍자료집. 103-139.
 임연기·정택희·장덕호·최준렬·홍후조·김규태·박삼철·히고코우세이(2012).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임연기 외(2013 a).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관리 가이드라인. 교육과학기술부.
 임연기·정택희·이지영·히고코우세이(2013 b).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성과. 교육과학기술부.
 임연기·정현용(2013 c). 2012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우수 운영 사례. 교육과학기술부·충남교육청·한

국농촌연구센터.

임연기(2016). 통합운영학교의 쟁점과 과제. **교육연구**. 31(2). 83-104.

임연기(2018). 통합운영학교의 설립 의의와 비전. **지금 서울교육**. 11월호.

임연기·장덕호·백남진·정현용(2018).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모델 및 운영체제 개발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임연기·박삼철·김병찬·강충서·히고(2020). **세계의 통합학교**. 서울: 성안당.

임연기(2021). **딜레마와 교육정책: 한국 농촌학교의 딜레마 상황과 정책대응**. 서울: 학지사.

장덕호(2018). 통합운영학교 교원조직모델. 서울형통합운영학교연구팀 제3차 워크숍자료집. 1-23.

정일환 외(2010).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운영의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2018). 장래인구 특별추계 자료.

홍후조 외(1999). 초중등 통합운영 학교의 효율적 운영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주 제 발 표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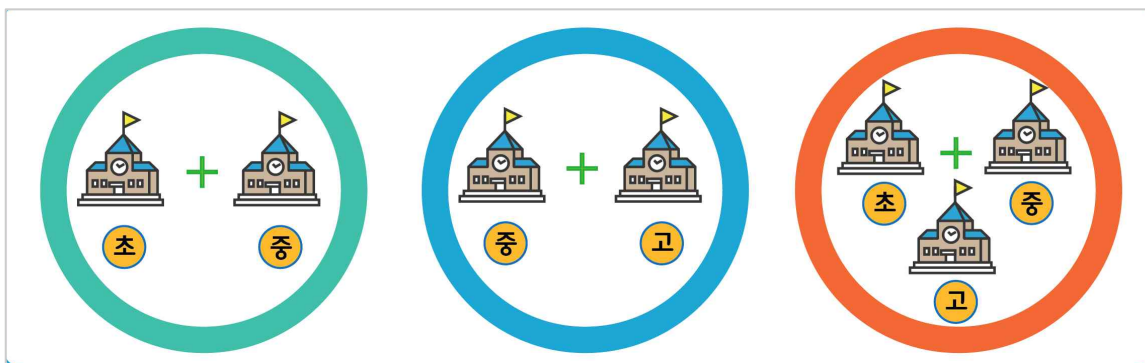
성열관(경희대학교 교수)

I. 서론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이라 볼 수 있다. 이미 30여 년 전부터 통합운영학교란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환(2003)에 따르면, 통합운영학교는 학교폐쇄가 지역사회의 축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폐쇄를 전제하지 않고, 기존의 학교 형태를 유지하면서 2개 이상의 다른 학교 급의 소규모 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운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와 중·고를 통합하여 교사, 시설, 행정직원, 그 밖의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학교 유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통합운영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통합운영학교 또는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논의는 농산어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음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운영학교를 도입하였다(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8.11.9.일자에서 발표, 2021년 현재 해누리초중이음학교 운영중. 이 학교는 소규모 학교는 아님).

[그림] 통합운영학교 유형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2018)

대도시에서도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과 다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따라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지역도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이 농산어촌과 문제는 상이하지만 저출산이라는 공통점을 포함해서 학교신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통합운영학교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운영학교 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오늘날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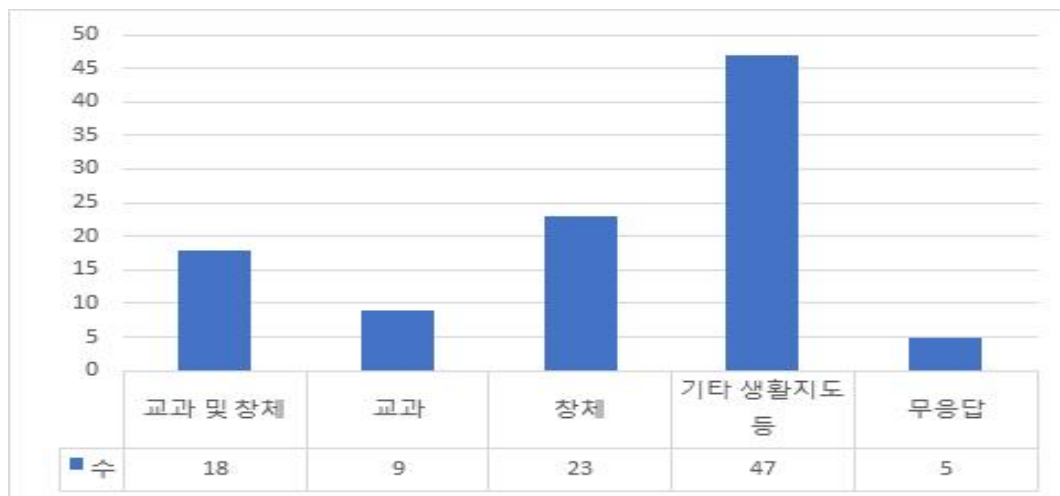
1) 이 글은 성열관, 강에스더, 이형빈(2019). 저출산시대 도래에 따른 통합학교 교육과정 효율적 편성·운영 방안 연구. 교육부.에서 본 포럼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고, 학교를 적절한 규모로 유지하며, 학교가 마을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허브 또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로 그 개념이 발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학교급을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 운영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통합운영학교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II.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연계 현황 파악

이 연구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관련 학교 급별 주요 연계 사항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학교 급별 주요 연계 사항으로는 기타(생활지도 등)가 전체 102개 학교 가운데 47개 학교(46%)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23개 학교(22.6%), 교과 및 창체 18개 학교(17.6%), 교과 9개 학교(8.8%), 무응답 5개 학교(4.9%)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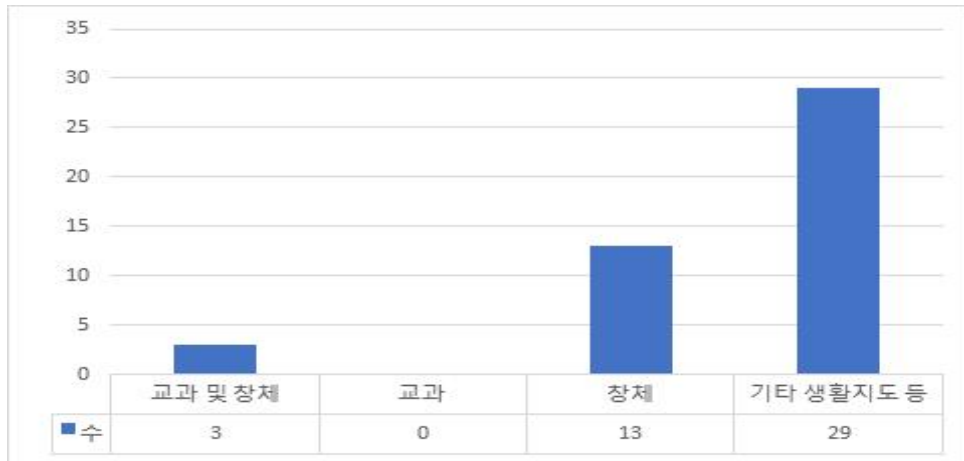
[그림] 학교 교육과정 연계유형



1. 초·중 통합운영학교 연계 현황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학교 급별 주요 연계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교과를 중심으로 한 학교급별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기타생활지도 등 (64.4%), 창체(28.9%), 교과 및 창체(6.7%) 순으로 학교급별로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타(생활지도 등)에 속하는 세부내용으로는 ‘마을축제’, ‘등교지도’, ‘생활 및 안전지도’, ‘학교 설명회’ 등이다.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는 입학식, 졸업식, 축제 등 학교 행사 및 학사 통합운영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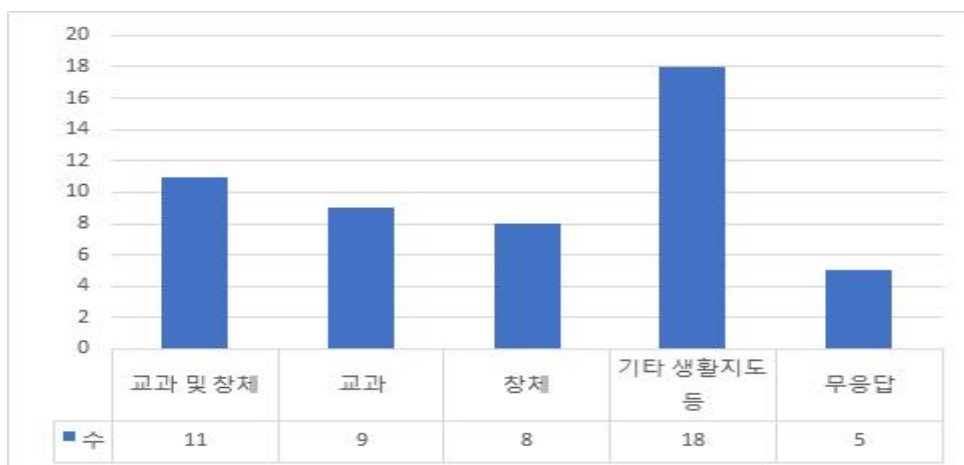
[그림] 초·중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연계유형



2. 중·고 통합운영학교 연계 현황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초·중 통합운영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타(생활지도 등) 활동이 가장 높은 비율(18개 학교, 35.3%)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9개 학교(17.6%)에서는 교과에 대한 학교 급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9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과에 대한 연계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예체능 교과 혹은 전문 실기 교과목을 중심으로 중고를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과목 별로(국어, 사회, 영어, 역사, 과학, 미술, 중국어, 체육, 기술가정 등)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지원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림] 중·고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연계유형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개 존재하고 있는 통합운영학교들은 학교급간 연계 교육과정이라는 목적과 필요에 의해 설치된 학교라기보다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대안으로서 두 개

의 학교를 하나의 형태로 물리적·형식적으로 결합한 학교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통합운영학교 현장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학교 급간 교육과정, 교사들의 근무환경, 문화 등의 다른 점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무실 하나도 여러 학교 급이 통합으로 사용하기 힘든 상황에 교과 지원이나 특별실 통합은 더욱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이유경 외, 2015; 임연기, 2016).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이 존재하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경기도교육청, 2018).

해외의 국가는 대부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K-6-3-3 학제이지만, 미국과 아일랜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통합되어 있고, 핀란드와 대만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9년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김진숙 외, 2013). 그런 점에서 향후에는 통합운영학교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Ⅲ.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례와 가능성

경기도교육청(2018)은 통합운영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초·중 교육과정 통합 편성 사례 (예시)

구분	내용	대상	시기	비고	구분	프로그램	겸임 교사	교류 학년	교류 수업시간	비고
교과	영어·수학, 미술, 음악의 겸임교사 지원	5~6학년	연중	중등겸임 교사제	교과	음악	○○○ (중)	5~6학년	각 2시간	2,4주 운영
	초등교사의 중등 부진아 지도 수업 지원	중1~2	"	"		미술	○○○ (중)	5~6학년	각 2시간	"
창의적 체험활동	초·중 통합 행사 활동 운영	1~9학년	"	"		영어	○○○ (중)	5~6학년	각 1시간	"
	자율,동아리,봉사, 진로활동 통합(수요일)	"	"	"		수학	○○○ (중)	5~6학년	각 1시간	"
학생 활동	초·중 통합 방과후 학교 운영	"	"	"	- 교과 교류 수업 내용 음악, 미술: 실기 및 기능 향상 영어: 수준별 회화 및 문법 중심 수학: 원리 탐구 및 심화 학습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편성·운영 매주 수요일 5교시 초·중 통합 창의적 체험활동 고정시간표 운영, 주별로 자율, 봉사, 동아리, 진로 활동 통합 운영					
	초·중 통합 학생 인성지도 실시	"	"	"						
	초·중 통합 진로지도 실시	"	"	"						
특색 사업 통합 운영	초·중 통합교육과정의 효율적 현장 적용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이 층무공 정신 계승	"	"	"						

통합운영학교는 한 울타리 안에 서로 다른 학교급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계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위의 예시 자료에 의하면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중등교사가 초등학교 영어, 수학, 미술, 음악 등의 과목에서 겸임교사로 지원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학교, 특색사업 등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면적인 연계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예체능 방과후학교의 경우 일정 규모의 학생 수가 확보되어야 단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도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에 바람직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통합운영학교는 아직까지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강원도교육청의 <초·중 연계 교육과정 정책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1. 교육과정 연계 사례: 강원도 홍천

농촌지역은 학령인구의 자연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이동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매우 심각한 위기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로, 면 지역에서 읍 지역으로의 이동, 읍 지역에서의 시 지역으로의 이동, 수도권으로의 이동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많은 면 지역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 단계에서 읍 지역이나 시 지역으로의 학생 이동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강원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두레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좀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의 부담은 커지고, 특히 중학교 진학 단계에서의 타 지역 이동을 막아낼 만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라는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주로 수평적인 학교 급간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초창기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학교들도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이미 전학을 가요.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만으로는 학생들을 유인하기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거죠.”

- 강원도교육청 A 연구사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강원도교육청은 초·중 연계 교육과정을 모색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초·중 연계 교육과정 운영 정책연구학교’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업에 강원도 춘천시 G초등학교-S중학교, 강원도 홍천군 S초등학교-S초등학교-C분교-S중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서로 인접해 있으며, 교원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연구학교에 공모하게 되었다. S1초등학교, S2초등학교, C분교와 S중학교는 강원도 홍천군 면지역에 위치한 소규모학교이다. S1초등학교는 전교생이 58명, S2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6명, C분교는 전교생이 21명, S중학교 전교생이 38명이다. 이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의 절반가량이 읍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숫자가 적다.

이 학교들은 면 단위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중등학교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다양한 예술·체육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들 학교들은 S중학교를 거점으로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학교를 함께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S중학교와 S1초등학교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S2초등학교와 C분교는 S중학교까지 에듀버스(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이동 차량)를 통해 1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네 학교가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또한 면 지역에서는 예술·체육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사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한기를 이용하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합창, 합주, 운동경기 등의 예술체육활동을 하려면 일정 규모의 학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해 인근학교가 함께 모여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초·중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우선 4개 학교 교원이 모인 초·중 연계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 및 교사 협의체를 운영하였다.

<표> 초·중 연계 교육과정 교사 협의체 활동 내용

영역	협의체명	주요 활동	구성 방법
정규 교과	초·중 체육	초·중 체육 교육과정에 따른 연계 수업 지도안 개발	중 : 체육과 초 : 체육 담당
	초·중 음악	초·중 음악 교육과정에 따른 연계 수업 지도안 개발	중 : 음악과 초 : 음악 담당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초·중 연계 음악 앙상블 동아리 운영 방법 개발	초·중 동아리 담당
	행사 활동	초·중 연계를 통한 행사 활동 운영 방안 모색	초·중 행사 담당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초·중 연계 방과후 학교교육 활동 모색	초·중 방과후학교 담당

<표> 초·중 연계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구성

구분	인원	담당자		활동 내용
위원장	1	S중 교장		총괄
부위원장	2	S1초 교감, S중 교감		지도 조언
교사위원	5	S중	교사 2인	예술·체육을 중심으로 한 연계 교육과정 협의
		S1초	교사 1인	
		C분교	교사 1인	
		S2초	교사 1인	

이 지역 교사들은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 초·중 연계 교육과정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정규 교육과정 내의 음악 교과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할 합창곡을 정하고 지도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공동 합창단을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 : 음악, 체육을 중심으로 초·중 연계 교육과정을 시도하게 된 이유는요?

S중 교사 : 우선 우리학교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예술, 체육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금요일 3~4교시 격주에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일단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더라고요.

연구자 : 다른 활동도 새롭게 시작했다는 말씀이신가요?

S중 교사 : 11월부터는 농한기가 되니까 이 때 8주에 걸쳐 학부모 교육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영어 원어민 회화 강사가 우리학교에만 있으니까 그 분이 초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학점제 방식으로 시기를 정해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 처음부터 완벽한 교육과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계속 강좌를 만들어 안착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마치 고교학점제처럼 강좌를 개설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그 강좌에 참여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초·중 연계 교육과정이 일회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원학습공동체가 단위학교를 넘어 인근학교와 연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인근학교 연합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다.

<표> 초·중 연계 교육과정을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구분	주요 활동 내용	시기	비고
소통의 날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소통을 위한 협의	매월 넷째 주 수요일	학교별 실시
초·중 연계 운영 협의회	영역별, 주제별 교사협의회 실시	격월	초·중 연계 실시
전문성 강화의 날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활동	학기별 1회	초·중 연계 실시
예술·체육 체험 활동의 날	음악, 체육 체험 활동	연 1회	초·중 연계 실시

이러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초등교원들과 중등교원들이 함께 교육활동을 나누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수시로 학교 간 교류를 통해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네 학교의 연계 교육과정이다.

<표> 강원도 홍천군 S1초-S2초-C분교-S중 연계 교육과정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격주) 토요예술학교 스포츠데이
2교시						
3교시					(격주) 동아리 활동	
4교시						
5교시, 6교시						
방과후 학교			(매주) 스포츠 활동	(매주) 음악 학교		

네 학교는 일 년 간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연계 교육과정에 대해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자유 응답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초·중 연계 교육과정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

대상	응답내용
학생	○ 초등, 중등이 함께한 합창 활동이 가장 좋았다. ○ 플라잉디스크 얼티미트라는 종목을 처음 접해 보았다. ○ 방학 중 캠프에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악기를 연습하여 좋았다. ○ 중학교 선배들과 플라잉디스크 심판 양성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학부모	○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 꽃 씨앗학교 음악회가 인상 깊었다. ○ 초·중 연계 합창 활동이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 토요 스포츠 활동이 좋았다.
교사	○ 초등, 중등이 함께 참가한 합창대회가 좋았다. ○ S2초 어울림 한마당에 S중 밴드가 와서 공연을 하여, 마을 사람들이 연계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연주회 활동이 좋았다. ○ 다양한 악기 합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가 함양되는 것 같다. ○ 중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습이 좋았다.

<표> 초·중 연계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

대상	응답내용
학생	○ 새로운 악기를 함께 배우는 분위기가 좋다. ○ 나의 수준에 맞는 체육 수업을 들을 수 있다. ○ 중학교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부모	○ 처음에는 초등학생들이 함께 함으로써 중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초등학생들의 기량이 좋아지면서 지역 안에서 중요한 활동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이가 시골에서 접하기 어려운 악기를 전문적으로 배움으로써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지속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숨은 꿈과 끼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 아이들이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중학교가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교사	○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초·중 연계한 인성교육 및 중학교 적응교육을 할 수 있다. ○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를 바라보는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학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학교에 대한 홍보 효과, 지역 기반 인적·물적 자원 공유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타 지역으로 학생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다.

2. 교과 연계 교육과정

위에서 언급했던 초·중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의 비전,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기 위한 교원학습공동체와 담임연임제의 토대 위에서 본격적인 초·중 연계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현재 학교 교육과정의 영역은 크게 보아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초·중 통합운영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 교육과정 자체가 초등과 중등의 연계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이 각각 분리되어 양성되기 때문에 서로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거의 모든 교과를 담당하고 있고, 중학교는 교과교사가 해당 교과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교육과정에서 초·중 연계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교과 영역에서 초·중 연계 교육과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강원도교육청의 <초·중 연계 교육과정 정책연구학교> 사례에서 교과 영역에서의 초·중 연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 학교는 음악, 미술, 체육 과목뿐만 아니라 수학 과목에서도 초·

중 연계 교육과정을 시도하고 있었다.

우선 교과 차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의 의미를 개념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중 교과 연계 교육과정의 차원을 크게 세 형태로 설정하고자 한다.

<표> 초·중 교과 연계 교육과정의 세 형태

약한 형태의 교과 연계	중간 형태의 교과 연계	강한 형태의 교과 연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서로의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각자의 교육과정을 운영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간단계에서 중학교 적응 활동(전환기 프로그램) 운영	일부 과목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동일한 수업에 참여 (초등교원/중등교원 팀티칭)

가. 약한 형태의 교과 연계

약한 형태의 교과 연계는 본격적인 교과 연계를 모색하기 이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서로의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각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이 교육과정을 함께 분석하는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교사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한 토대 위에 초등학교 6학년 수업을 진행하고, 중학교 1학년 교사는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한 토대 위에 중학교 1학년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이러할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사이의 간극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

나. 중간 형태의 교과 연계

중간 형태의 교과 연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간 단계에서 중학교 적응 활동, 혹은 전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말에 중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중학교 1학년 초에 진단활동의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복습하는 형태이다. 초등학교 6학년 말에 진행할 수 있는 중학교 적응 프로그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초등학교 학년말 중학교 적응 프로그램 예시

영역	활동	내용	지도
학생 생활	미리 경험하는 중학교의 하루	- 중학교 일과 체험하기 - 중학교 선배와의 대화	- 초-중 교사 - 초6-중1 학생 선후배 멘토링
	중학교에 가면 달라지는 것들	- 담임교사와의 관계 - 교과교사와의 관계	

		• 학교 규칙 • 선후배 관계 • 급식	
교육과정수업 평가	중학교 수업 맛보기	• 중학교 수업 참관	
	학습 방법	• 중학교 교과서 미리 살펴보기 • 중학교 모둠활동 맛보기 • 중학교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살펴보기 • 중학교 노트 작성법 알아보기 • 나의 학습 스타일 알아보기	

출처: 김태은 외(2015). 재구성²⁾

다. 강한 형태의 교과 연계

강한 형태의 교과 연계는 일부 과목에서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이 함께 팀티칭을 진행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이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겸임교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2018). 이러한 형태의 수업은 초·중 통합운영학교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적은 시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가 타고 겸임교사를 하는 대신 통합운영학교 초등학교의 겸임교사 형태로 팀티칭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과 연계가 필요한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영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 수가 필요한 학습활동 영역이다. 음악 과목에서의 합창이나 기악 합주, 미술 과목에서의 공동 창작, 체육 과목에서의 단체 스포츠 활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실제로 초·중 교과 연계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초·중학교에서는 이러한 과목에서의 코티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영역은 중등교사의 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목이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주로 교과전담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수업이 필요한 영어 과목, 다양한 실습기자재를 활용해야 하는 과학, 실과, 기술가정, 정보 과목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과목의 초·중 교과 연계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예를 ‘실과/과학/정보/기술가정’ 과목과 ‘체육’ 과목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김태은 외(2015)에서 제시한 내용을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였음.

<표> 초·중 연계 교과 교육과정 예시(실과/기술가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	성취기준			
실과	기술 시스템	[6실04-08]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한다.			
		[6실05-06] 생활 속에서 로봇 활용 사례를 통해 작동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한다.			
중학교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	성취기준			
과학	과학 기술과 인류 문명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려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정보	문제 해결과 프로 그래밍	[9정03-03] 논리적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의 해결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상한다.			
		[9정03-04]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기술 가정	기술 활용	[9기가05-06]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수렴 사고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수업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차시	교과	내용	차시	교과	내용
1-2	실과	언플로그드 활동하기	1	과학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탐구
			2	정보	알고리즘의 구성
3-4	통합	로봇 작동원리와 코딩 (80분 블록수업)			
5-6	통합	코딩로봇 축구대회 (80분 블록수업)			
7	실과	로봇과 우리생활의 관련성	7	기술 가정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로봇 활용 방안

출처: 경기도교육청(2018). 재구성³⁾

3) 경기도교육청(2018)이 제시한 사례를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였음.

<표> 초·중 연계 교과 교육과정 예시 (체육)

초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	성취기준			
체육	필드형 경쟁	[6체03-03] 필드형 게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게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 전략을 탐색하고 적용한다.			
		[6체03-04] 필드형 경쟁 활동에 참여하면서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게임을 수행한다.			
중학교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	성취기준			
체육	필드형 경쟁	[9체03-05]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고, 경기 유형, 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한다.			
		[9체03-08] 필드형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팀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수업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차시	교과	내용	차시	교과	내용
1-2	체육	필드형 경기의 규칙 이해하기	1-2	체육	필드형 경기의 역사 이해하기
3-4	체육	필드형 경기 규칙 익히기 (80분 블록수업)			
5-6	체육	초6·중1 연합팀 간 필드형 경기 진행하기 (80분 블록수업)			
7	체육	소감 나누기	7	체육	초·중 연합 체육활동 새롭게 기획하기

IV.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가. 교육과정 특례 제도 도입

통합운영학교는 여러 측면에서 현행 국가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우선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어렵다. 중·고 통합운영학교라 할지라도 교원수급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운영학교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서로 공유하더라도 통합운영학교의 잠재력을 충분히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운영학교에 더 많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특례 제도는 일본의 일관학교 및 의무교육학교 정책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초·중등 연계 교육과정을 실시하려는 학교에서는 현행 국가 교육과정보다 더 많은 자율권을 보장 받을 때,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현실화할 수 있다.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정 특례교에서는 이를 달리 적용하여 교과(군)별 시수 증감 범위를 유연화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초등학교 1~2학년군은 336시간, 3~4학년군과 5~6학년군은 204시간, 중학교 1~3학년군은 306시간, 고등학교는 3년간 408시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창의적 체험활동의 본래 영역인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외에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등) 시수가 너무 많아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초·중 연계, 중·고 연계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법적 의무 시수 확보 문제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향후에는 통합운영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초·중 연계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법 제2조에 의하면 ‘선행교육’이란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의미한다. 교육부(2014)는 이 법이 말하는 선행의 기준을 ‘학년(군)’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는 법령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초·중 통합운영학교에서는 5~7학년을 하나의 학년군으로 설정하여 초·중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교육과정 특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첫째, 향후에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통합운영학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 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운영학교뿐만 아니라 농촌 소규모학교에도 교육과정 특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초·중 연계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원하는 소규모학교,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소규모학교에는 이러한 교육과정 특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일반학교라 할지라도 국가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재구조화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를 따르는 범위 안에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추구하는 경우 교육과정 특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나. 국가 교육과정 체제 개편

향후에는 국가 교육과정의 체제 자체를 여러 유형으로 개발하여 학교가 이 중 일부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유형이나 학교규모, 지역적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성취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에서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나 동일한 성취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그 결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 보통교과의 수업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보통교과의 성취기준 중 일부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부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방향으로 국가 교육과정이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규모학교나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과정 자체에 여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특수교육과정이 일반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있어,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성취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참조해 볼 수 있다. 향후에는 특수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학교의 유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학교의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교육과정 체제 자체가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버전 가운데 일부를 채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다. 통합운영학교를 독립적 학교유형으로 법제화

현행 통합운영학교 제도는 그 위상이 매우 불안정하다. 현재의 통합운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초-중, 중-고, 초-중-고 등 학교 급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을 통합하여 운영학교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통합운영학교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기서 말하는 통합이 ‘물리적 통합’에 머물러 있어 ‘한 울타리 안에 두 개의 학교가 별도로 존재하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외에 초중학교(9년제), 중고학교(6년제), 초중고학교(12년제)를 독립적인 학교 유형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일관학교’ 운영 이후 ‘의무교육학교(9년제)’를 설립한 것에서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9년 혹은 6년 동안의 긴 호흡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성장발달 과정을 누적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개별화 교육계획에 따른 성장발달 평가를 도입할 수 있다.

라. 교원정책 개선

초중등 연계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원정책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초중등교육은 학제(K-6-3-3), 교육과정(공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교원자격(초등교원, 중등교원)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어 초중등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학제와 교원정책은 워낙 민감한 문제라 이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초중 연계 교육과정을 위해 제한된 범위 안의 초중등 교원의 벽을 허물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소정의 연수 과정을 이수한 중학교 교원이 초등학교 일부 과목(주로 예체능)에 한해 교과전담을 맡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 초·중 통합운영학교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복수 자격교사,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복수 자격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교육대학교나 국립사범대학에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 초/중등 교원 교류 지원

통합운영학교에서는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중학교 교원과 고등학교 교원이 교원학습공동체를 함께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래야 통합운영학교에서부터 내실 있는 초중등 연계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다른 학교에도 일반화할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다.

또한 통합운영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에서 초중등 연계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원들과 중등학교 교원들이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역 내 초중등 교원들이 함께 서로의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연수를 마련하거나, 서로 다른 학교 급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비록 초중등 연계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이전이라도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이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을 진행하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바.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

통합운영학교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의 학습이력, 성장과정에 대한 기록이 체계화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IDP와 같은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3자 대화를 통한 성장발달 목표 수립, 핀란드의 ILP와 같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중층적 지원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성장과정이 공유되는 책임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과 함께 현재의 NEIS 시스템, 학교생활기록부의 위상까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연계 교육과정,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개별화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자료, 기록양식 등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다만 이는 획일화된 절차나 입력 시스템이 아니라 교사들이 다양하게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예시자료나 기록양식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통합운영학교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개별화 교육과정, 학교 급간 연계 교육과정은 통합운영학교 우선적으로 실천하기에 유리하다. 그리고 이는 통합운영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일반화되어야 할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체제 마련

현재 시·도교육청별 교육과정 업무가 대부분 초등 또는 중등으로 직제를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급을 넘나드는 업무의 총체적이고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 통합운영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합운영 관련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

기 위한 지원체제 마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경기도교육청(2018).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매뉴얼. 미간행유인물.
- 김진숙·박순경·최정순·이효녕(201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성에 대한 국제비교.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은·박선화·노원경·박용효(2015). 초·중학교 교수학습 연계 지도 전략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현주(2019). 강원도형 유·초·중·고교 연계 교육과정 기초 연구. 강원도교육연구원(2019). 현장과 함께하는 강원교육 정책연구 세미나 자료집.
-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2019년 서울, 새로운 학교 모델 “이음학교” 도입. 2018년 11월 8일 보도자료.
- 양희준 외(2018). 학생수 감소에 따른 농촌교육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이동성(2017). 농어촌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교사들의 공동교육과정 운영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초등교육연구, 30(2), 81-106.
- 이병환(2003). 통합운영학교를 통한 소규모 학교 운영체제 개선. 중등교육연구, 51(1): 1-25.
- 이형빈(2019). 국내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사례 연구: 개별화 교육과정 및 연계 교육과정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2019 국가 교육과정 포럼 발표문.
- 임연기(2016). 통합운영학교의 쟁점과 발전 과제. 교육연구, 31(1): 83-105.
- 조규복(2017)일본의 인구감소 문제와 학교시설 복합화, 해외교육동향, 월간교육 11·12월호, pp. 100-107.

통합운영학교 교원 자격 관리 발전 과제

김도기(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미래 교육을 위한 학제 개편, 초·중등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학교의 확대와 초·중등 학교급 간 복수 자격 취득 교원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 원고에서는 통합운영학교의 필요성과 운영 현황, 통합운영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교원 양성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직교사의 통합운영학교 교원 자격 취득 방안과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발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I. 통합운영학교의 필요성 및 운영 현황

현직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통합운영학교 교원 자격 취득 방안 및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 발전 과제를 구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통합운영학교의 의미와 필요성,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통합운영학교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통합운영학교의 의미와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학교운영 및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학령인구 감소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30년 180만 명으로 2017년 대비 66% 수준,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는 2030년 114만 명으로 2017년 대비 83% 수준,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는 2030년 132만 명으로 2017년 대비 77% 수준,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2030년 181만 명으로 2017년 대비 6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이러한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는 농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농촌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많은 농촌 지역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 수도 확보하지 못한 채 활력을 잃어갔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부터 추진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많은 농촌 지역 학교들이 통폐합되었으며, 해당 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농촌 지역 주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 자치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안주열, 2012).

이에 대한 정책적 반성의 일환으로, 적정 규모 학교의 배치, 미래형 학제 개편, 학교 자원의 공유·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논의가 1996년 2월 9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란**,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통합 활용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로서, 1998년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0. 1. 10.).

통합운영학교는 도입 초기, 농촌 지역 학교의 적정 규모 학생 수 확보와 학교 통합을 통한 가용 자원의 효율적 운영 등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의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관심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도시 지역에서도 저출산 및 개발지구로의 인

구 이동 현상이 나타나며 적정 규모 학교 배치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고(장봉석, 2019),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도시형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생기고 있어 향후 통합운영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지역을 막론하고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통합운영학교는 미래교육을 위한 탄력적 교육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주요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김기수 외, 2019; 성열관, 강에스더, 이형빈, 2019). 그 까닭은 통합운영학교가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새로운 학교 체제를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며 기존의 경직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학제 유연화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김현주, 2019; 성열관·강에스더·이형빈, 2019; 정미경·이상은·박상완·민윤경, 2021: 67 재인용).

이러한 의미를 갖는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의 적정화 및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과정 및 활동의 연계성과 적절성, 계열성 확보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유·초·중등 교육의 단계별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남수경, 2009).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교육기반 형성 및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초·중등 교육을 연계하여 가르칠 수 있는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이 현시점에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통합운영학교 운영 현황

통합운영학교의 학교 수와 변화 추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사 수급 방식, 교사의 근무 여건 등 우리나라 통합운영학교의 최근 운영 현황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최근 10년간 초·중등 통합운영학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2> 2009년 통합운영학교 현황

구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중			5	1	6	7	5	6	9		5	44
중·고	4			3		15	8	11	3	5	1	50
초·중·고		4	1				1					6
계	4	4	6	4	6	22	14	17	12	5	6	100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0. 1. 10.)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2009년 1월 기준 100개의 통합운영학교가 있었고 이 중, 초·중 통합 44교, 중·고 통합 50교, 초·중·고 통합 6교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 3월 기준 106개의 통합운영학교 중에서는, 초·중 통합 49교, 중·고 통합 51교, 초·중·고 통합 6교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33> 2020년 통합운영학교 현황

구분	부산	인천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중		1	2		6	1	6	6	6	5	9	2	5	49
중·고	3	3	1	1		3		14	9	6	7	3	1	51
초·중·고		4			1				1					6
계	3	7	2	1	6	4	6	20	16	11	16	4	6	106

출처: 성열관 외(2019), 에듀인뉴스(2019), 경상남도교육청(2020), 경인일보(2020)를 참고하여 재구성

이외에도 성남 판교, 전남, 서울 지역에 초·중등 통합운영학교가 추가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라는 기사들(동아닷컴, 2020. 1. 21.; kbs 뉴스, 2020. 7. 23.; 지금서울교육, 2018)로 보아, **초·중등 통합운영학교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 기준의 통합운영학교 현황을 설립 구분, 지역 규모, 설립 형태로 세분화하면, 전체 106개교 중 공립은 99개(93%), 사립은 7개(7%)였으며, 농어촌형이 96개(91%), 도심형이 10개(9%)로 농어촌 지역의 통합운영학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설립형태는 기존 학교를 통합한 것이 92개(87%), 신설 학교를 통합한 것이 14개(1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합학교 현황을 세분화한 것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2020년 통합운영학교 현황 구분

구분	세부 구분		
설립구분 현황	공립 99개(93%)	사립 7개(7%)	계 106개(100%)
지역규모 현황	농어촌형 96개(91%)	도심형 10개(9%)	
설립형태 현황	기존학교통합 92개(87%)	신설통합 14개(13%)	

출처: 이지유·이종국(2020)을 참고하여 재구성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 국내 A도 소재의 B통합운영학교 사례를 토대로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B통합운영학교는 총 학생 수 65명(초등학생 27명,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14명)의 초·중·고등학교 통합운영학교로서, 교장 1명, 초·중등 교감 각 1명을 포함한 전체 교직원 42명(교원 28, 행정직 14명)의 규모를 가진 학교이다.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B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초·중·고등학교가 하나의 교사(校舍)를 공유하고 있지만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형태를 띄고 있었다. 즉, 초등수업의 경우 초등교사 8명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중등수업은 각 교과별로 1명 내지는 2명의 교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을 맡아 최소 한 개 학교급의 3개 학년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지 과목인 국어·영어·수학은 각각 2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중학교 3개 학년과 고등학교 3개 학년 수업을 나누어 맡고 있었으며, 일반사회 및 역사, 체육, 미술, 기술·가정, 한문 교과의 경우 1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중·고등학교 수업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다. B통합운영학교는 중·고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내 예·체능 교사들의 겸임 발령을 통한 방과후 수업지원 및 순회교사제도를 통한 타 학교와의 수업 교류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통합운영학교의 취지를 살리고자 과학토론행사와 같은 교과별 초·중등 통합행사도 실시하고 있었다.

B통합운영학교의 교원 수급은 현행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원인사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학급수에 따라 단위학교 교사 수가 결정되고 있었으며 A도의 교원순환전보규정에 의해 교사들이 4년에서 5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고 있었다. B통합운영학교의 경우 농·어촌 지역 학교 가산점이 있는 학교이기에 벽지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벽지학교를 가기 위한 전 단계의 학교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교원의 통합운영학교 근무에 관한 별도의 인사상 가산점이나 혜택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B통합운영학교 교직원의 근무 여건에 대해 살펴보면,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할 수업과 업무량이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중등교사의 경우 교사 한 사람이 중·고등학교 수업을 모두 담당해야 할 때가 많으며, 한 학교급의 수업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교사수가 부족해 3개 학년의 수업을 모두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상 교사 업무의 성격이 초

등과 중등 모두를 아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 한 사람당 대여섯 개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같이 많은 업무량은 행정실과 급식실, 보건·영양·사서교사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앞서 살펴본 B통합운영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B통합운영학교 운영 현황

구분	주요 사항
교직원 및 학생수	· 교직원 42명(교장 1명, 초·중등 교감 각 1명을 포함한 교원 28명 / 행정직 14명) · 학생수 65명(초등 27명, 중등 24명, 고등 14명)
교육과정 운영	· 초등과 중등교육과정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형태 · 초등교사 8명이 초등수업 담당 · 중등수업은 교과별 1~2명의 교사가 중, 고등학교 수업을 맡아 3개 학년 모두 담당 - 국어·영어·수학은 각각 2명의 교사가 각각 중, 고등학교 수업을 나누어 맡음. - 일반사회 및 역사, 체육, 미술, 기술·가정, 한문 교과의 경우 교사 1명이 배치되어 중·고등학교 수업을 모두 담당 · 교내 예·체능 교사들의 겸임 발령을 통한 방과후 수업지원 · 순회교사제도를 통한 타학교와의 수업 교류 실시 · 과학토론행사와 같은 교과별 초·중등 통합행사 실시
교원 수급	· 현행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원인사규정을 따름. - 학급수에 따라 단위학교 교사수가 결정 - A도의 교원순환전보규정에 의해 4~5년 마다 교사들이 인사이동 · 농어촌지역 학교 가산점이 있는 학교이기에 벽지학교 근무 희망 교사들이 벽지학교 가기 전 단계의 학교로 인식 · 교원의 통합운영학교 근무에 관한 별도의 인사상 가산점이나 혜택은 없음.
근무 여건	·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할 수업과 업무량이 타학교에 비해 많음. - 중등교사의 경우 교사 1인이 중·고등학교 수업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최소 3개 학년의 수업을 담당하여야 함. · 통합운영학교 특성상 업무의 성격이 초·중등 모두를 아우르고 있음. · 교사 1인당 5~6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이는 행정실 등 타 교직원도 예외가 아님.

출처: B통합운영학교 2021학년도 교육계획서 및 교사 면담결과를 참고하여 재구성

3. 통합운영학교 운영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B통합운영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운영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통합운영학교 내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의 분절 및 교류 부족이다.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다수의 학교가 초등수업은 초등교사가, 중·고등수업은 중등교사가 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 B통합운영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의 과중한 수업 부담을 이유로 학교급 간 수업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하는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 내용 및 습득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학교급에서의 수업을 꺼린다고 하였다(B통합운영학교 교사 면담 결과, 2021. 4. 28.). 중·고등학생 방과후 수업지원을 위한 예체능 교사들의 겸임발령을 제외하고는 교사들의 겸임발령을 내지 않은 것도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분절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교육부(2010. 1. 10.)는 통합운영학교의 조직 및 교직원 배치의 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급 간 겸임발령을 확대하여 수업지원 등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통합운영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B통합운영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토론행사, 통합 체육대회 등 초·중등 통합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세 개의 학교급이 각자 계획을 짜고, 초·중등 교사 간의 교류와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 ‘한 지붕 및 다른 학교’라는 표현까지 생기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B통합운영학교 교사 면담 결과, 2021. 4. 28.).

둘째, 통합운영학교 교사의 수업 및 업무 부담이 과다하다.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현행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원인사규정을 따르고 있어, 학급수에 따라 단위학교 교사수가 결정된다. 우리나라 통합운영학교의 90% 이상은 농어촌지역 학교임을 앞서 확인한 바 있으며, 학생수가 많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통합운영학교의 교사수 또한 적정수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B통합운영학교 교사 면담 결과, 2021. 4. 28.). 이로 인해 특히 통합운영학교의 중등교사들은 중·고등수업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 한 개 학교급의 3개 학년 수업을 맡아야 한다고 한다. 많은 통합운영학교에서 이러한 문제를 순회교사제도를 통한 수업 교류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통합운영학교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업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상 업무의 성격이 초·중등 모두를 아우르고 있기에 그 규모가 크고 또 그것을 소수의 교사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 교사 한 사람이 5~6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비단 통합운영학교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실 등 교직원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교직원 간 갈등도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셋째, 통합운영학교 근무 교사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부족하다. B통합운영학교의 사례를 통해 비추어 보았을 때, 통합운영학교 교사들은 과중한 수업 부담과 격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학교 근무에 대한 인사상의 지원이나 혜택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B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일부는 B통합운영학교가 농어촌지역 학교 가산점이 있는 학교이기에 벽지학교를 가기 전 단계에 오는 학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B통합운영학교가 통합운영학교라서 제공되는 혜택이라기보다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학교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좋은 인상과 사명을 가지고 근무하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다수의 교사들이 과중한 수업 부담 및 업무로 인해 번아웃 증상을 보이거나,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보내신을 신청한다고 하였다(B통합운영학교 교사 면담 결과, 2021. 4. 28.).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았을 때, 통합운영학교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합운영학교의 주요 취지인 초·중등 교육과정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것과 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과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통합운영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교원 양성 현황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발전 과제를 구상하기에 앞서, 통합운영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교원 양성의 개념, 우리나라의 통합운영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교원 양성 현황과 현행 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과정 예비교사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1. 통합운영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교원 양성의 개념

통합운영학교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새로운 자격을 보유한 교원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 원고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이란 초등교사 자격과 중등교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을 모두 담당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교원양성체제에서 초·중등학교급 간 복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원고에서 제시되는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은 ‘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혹은 ‘학교급 간 복수 자격 취득’ 등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겠다.

2. 통합운영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교원 양성 현황

먼저 우리나라의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 복수전공 이수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은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제시되어 있다.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대상은 사범대학 졸업자(대학의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 분야를 복수로 전공한 자이다.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은 사범대학의 학과나 일반대학의 교육과, 또는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만 가능하며, ‘초등교육과’에서의 복수전공은 별표 2중 초등학교 정교사란 제2호(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에 따라 사범대학 재학생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원 과정에 있는 사람은 복수전공 자체가 불가하며,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학하여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또한 불가하다(단, 사범대학이나 사범계학과 편입은 가능).

현재 국내 교사양성기관 중 초·중등교사를 함께 양성하고 있는 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가 있다. 이들 중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범대학 내에 초등교육과가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7장(복수전공)에서 2012년 이후 초·중등 급간 복수 자격 취득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2021. 3. 3.). 또한 제주대학교의 경우 교육대학(사라캠퍼스)과 사범대학(본캠퍼스)을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급 간 복수 자격 취득이 불가하고 사범대학 내 교과 간 복수전공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주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2020. 2. 25.). 이를 보았을 때, 국내 교사양성기관 중 초·중등학교급 간 복수 자격을 취득한 교원을 양성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곳은 한국교원대학교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국교원대학교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교원대학교는 1996년 복수 자격 취득 제도를 시행하여 2000년부터 복수 자격 취득자를 배출한 이래 현재까지 유·초·중등 교육에서의 복수 자격을 갖춘 교원을 양성해오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복수 자격 취득은 복수전공의 형태로 얻을 수 있으며, 학부 2학년 1학기부터 이수가 가능해 일반적으로 1학년 2학기에 신청을 한다. 지원 자격은 초등에서 유아·중등으로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경우는 크게 제한이 없으나, 유아·중등에서 초등으로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경우는 초등교육과 입학정원의 10%로 제한하여 성적순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당해 초등교육과 입학정원이 100명이라면, 단과대학의 규모를 고려해 1~4대학 중 1·4대학은 1명씩, 2·3대학은 2명씩 6명을 미리 선발한 후 남은 4명은 성적순으로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의 평균 학점은 4.4 이상이다.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전공의 이수 학점(유아 115점, 초등 117점, 중등 106점)을 포함하여 복수전공의 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유아·중등에서 초등으로 복수전공하는 학생들은 초등 심화과정 21학점을 제외한 전공 68학점, 실습 2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초등에서 유아·중

등으로 복수전공하는 학생들도 해당 심화과정 학점을 제외한 전공 57학점, 실습 2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이수 학생의 필요 이수 학점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한국교원대 복수전공 필요 이수 학점

복수전공 학과 소속학과	유아	초등	중등
유아	-	185학점 유아(115)+초등(68)+실습(2)	174학점 유아(115)+중등(57)+실습(2)
초등	176학점 초등(117)+유아(57)+실습(2)	-	176학점 초등(117)+중등(57)+실습(2)
중등	165학점 초등(106)+유아(57)+실습(2)	176학점 중등(106)+초등(68)+실습(2)	-

출처: 한국교원대학교의 2021학년도 교육과정 안내자료, 복수전공 이수자 선발 및 이수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재구성

교육실습의 경우 초등 주전공자는 참관 실습 1회와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교육실습 2회를 실시하고, 중등 주전공자는 교육실습 2회를 실시한다. 따라서 초등에서 중등으로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은 제2교육실습을 1회, 중등에서 초등으로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은 초등 참관 실습 1회, 제2교육실습을 1회 더 운영해 총 4회의 교육실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교육실습은 보통 4학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된다. 교육봉사는 주전공 60시간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에 따른 추가 교육봉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복수 자격 취득자가 처음 배출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복수 자격 취득자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한국교원대 졸업생 수 및 복수 자격 취득자 수

연도	졸업생 수 (A)	수직(유아+초등) 복수자격 취득자 수(B)	수직(초등+중등) 복수자격 취득자 수(C)	수평(중등 교과 간) 복수자격 취득자 수(D)	졸업생 수(학부) (A) 대비 복수 자격 취득자 (B+C+D) 비율
2000	585	1	4	23	4.8%
2001	612	7	29	153	30.9%
2002	580	1	37	180	37.6%
2003	600	5	44	253	50.3%
2004	1237	11	54	263	26.5%
2005	570	5	77	237	56%
2006	564	5	75	230	55%
2007	602	8	101	228	56%
2008	603	6	84	262	58.4%
2009	542	10	85	233	60.5%
2010	506	8	50	138	38.7%
2011	567	8	60	154	39.2%
2012	583	5	47	133	31.7%
2013	550	3	33	102	25.1%
2014	549	1	16	101	21.5%
2015	593	0	13	97	18.5%
2016	573	1	19	74	16.4%
2017	567	1	12	67	14.1%
2018	577	1	10	66	13.3%
2019	566	0	15	42	10.1%
2020	596	2	12	70	14.1%
누적(계)	12,722	89	877	3,106	32%

*출처: 한국교원대학교 (2020). 학사관리과 제공 자료를 참고

이와 같은 교원양성기관의 복수 자격 취득 과정은 학교급 간, 또는 다교과 자격을 갖춘 교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교원 수요 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중등 교육을 통합한 통합운영학교 설립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초·중등 자격을 함께 갖춘 교사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교원대학교는 지난 20여년 동안 통합운영학교에 투입될 수 있는 유·초 복수자격 소지자 89명, 초·중 복수자격 소지자 877명, 중등 복수자격 소지자 3,106명을 배출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복수 자격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활성화된다면 미래교육 및 학제 개편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과정 예비교사의 경험

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중등에서 초등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교사와, 초등에서 중등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급 간 복수전공 과정 이수 목적과 복수전공 교육과정 이수 시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향후 통합운영학교에 지원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급 간 복수전공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임용에 관한 의견은 어떠한지를 각각의 관점에서 알아보았다. 다음은 교육학과를 주전공으로 하여 초등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C예비교사(이하 중-초 복수 예비교사)와 초등교육학과를 주전공으로 하여 윤리 교과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D예비교사(이하 초-중 복수 예비교사)와의 면담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가. 중-초 복수 예비교사의 과정 이수 목적과 이수 시 어려운 점

먼저 주전공을 중등(교육학과)으로 하여 초등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C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2021. 5. 3.)하였다. 중-초 복수 예비교사의 과정 이수 목적은 ‘초등교육과가 다른 전공에 비해 임용 선발 인원이 많다는 점에서 졸업 이후 다양한 진로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복수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복수전공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많아(총 176학점) 보통 한 학기에 24학점씩 이수하게 되어 ‘수업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라고 하였다. 또한 1학점 수업이 0.5학점당 1시간씩 총 2시간으로 시간표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주전공 수업과 함께 시간표를 짜는 것이 상당히 버거운 상황’에 ‘복수 전공과목의 경우 강좌 선택의 폭이 좁은 점’도 교육과정 이수 시 어려운 점 중 하나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전공과 복수전공 과목을 동시에 이수하다 보니 수업 내용이 혼동되고 헷갈릴 때’가 많고, ‘전공에 대한 소속감 또는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하였다.

나. 중-초 복수 예비교사의 통합운영학교 지원 의사 및 복수전공 활성화 과제

향후 교사가 되어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급간 복수 자격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급 모두에서 수업을 해보면서 교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 통합운영학교 지원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급 간 복수전공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안 하였다. 첫째, ‘복수전공 자격 취득을 위해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경감 할 필요’가 있다. 복수전공 과목 추가

이수에 대한 학생들의 시간적, 물리적 부담과 비용이 매우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어 추가 이수 학점을 경감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현재, 학교급 간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복수 자격 취득을 위해 학교를 추가로 1~2년을 더 다니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졸업을 위해 결국에는 복수전공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다.

둘째, ‘추가 이수 학점 취득을 위한 계절학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의 계절학기에는 교직과목과 초등교육과정 전공과목이 거의 개설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계절학기에 복수전공 과목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추가로 이수할 수 있게 한다면 학기 중 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초등교육과 복수전공 과정 이수자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초등교육과 복수전공 과정 이수자 수는 초등교육과 정원의 10% 내외로 한정되어 부족한 선발 인원으로 인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다. 이로 인해 평균 학점이 4.5점인 경우에도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이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 중-초 복수 예비교사의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임용에 관한 의견

마지막으로 중-초 복수 예비교사는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별도의 과정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교원양성체제에서 이러한 별도의 양성과정을 도입할 경우 학교급 간 복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한국교원대학교의 일부 학생들에게만 거의 모든 기회가 돌아감에 따라 타 교대 및 사범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현재에도 ‘초등교육과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원인이 초등교사의 임용 선발 인원이 다른 중등 교과 전공에 비해 많다는 점이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과정을 마련하기 전에 전반적인 교원 수급에 대한 안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학교급 간 복수 자격 취득 기회의 확대’도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주전공을 초등으로 하여 중등 윤리 교과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하는 D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2021. 5. 4.)하였다. 해당 초-중 복수 예비교사의 경우 교사 임용·선발 인원이 중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을 주전공으로 하며 중등 교과인 윤리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있기에 앞서 면담을 진행한 중-초 복수전공 과정 학생이 가진 생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복수전공 과정 이수에 대한 관점 차이도 명확했음을 알 수 있었다.

라. 초-중 복수 예비교사의 과정 이수 목적과 이수 시 어려운 점

우선 초-중 복수 예비교사는 과정 이수 목적에 대해 ‘본래 희망했던 윤리교육과의 임용 선발 인원이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초등교육과에 먼저 진학한 후 윤리교육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향후 임용시험은 초등임용 및 중등임용(윤리교과)을 모두 준비할 예정이며 임용이 된다면 초등보다는 중등학교급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초-중 복수전공 과정 학생의 경우 복수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또한 그리 많은 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가 이수학점이 많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당초 초등교육을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취득

해야 하는 학점이 117점으로 중등교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취득해야 하는 학점인 106점보다 많은 상태에서 중등 복수전공 이수학점인 57점을 취득하는데, 이 복수전공 이수학점이 초등 복수전공 이수학점 68점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마. 초-중 복수 예비교사의 통합운영학교 지원 의사 및 복수전공 활성화 과제

향후 교사가 되어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의 차이에 의해 교육과정의 상이하므로, 교사 한 사람이 두 학교급 간의 학생을 모두 지도할 경우 업무 과다 및 수업의 질 저하, 그리고 교과 교육 전문성의 약화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급 간 복수전공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도 ‘복수전공 추가 이수학점의 확대를 통한 교과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초-중 복수 예비교사는 현재 복수전공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 보다는 복수 자격 취득만을 위한 필수 과목을 이수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하였다. 이에 복수전공을 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확대하여 복수전공 과목의 수강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게 함으로써 주전공 못지않은 해박한 지식과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바. 초-중 복수 예비교사의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임용에 관한 의견

마지막으로 초-중 복수 예비교사는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별도의 과정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재와 같이 교원 수급이 불안정적인 상황에서, 현행 교원양성체제 하에 학교급 간 복수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교원대학교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별도의 과정을 신설할 시 일부 학생에게만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통합운영학교 교원을 별도로 양성하기 전에 교원 수급의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며, ‘학교급 간 복수 자격 취득의 기회 확대 또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과정 예비교사의 시각을 중-초, 초-중 복수전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학교급 간 복수전공 과정의 이수 목적, 교육과정 이수 시 어려운 점, 학교급 간 복수전공 활성화를 위한 과제, 향후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지원 의사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과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교원 수급의 안정화 및 학교급 간 복수 자격 취득의 기회 확대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한 것을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사항이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 및 통합운영학교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Ⅲ. 현직교사의 통합운영학교 교원 자격 취득 방안

통합운영학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통합운영학교에서 근무 가능한 교원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직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통합운영학교 교원 자격 취득 활성화를 제안할 수 있다. 이 원고에서는 앞서 살펴본 통합운영학교 운영 현황 및 통합운영학교 교원(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양성 현황을 바탕으로, 현직교사 재교육을 통한 통합운영학교 교원 자격 취득 방안을 현직교사 재교육의 운영 주체, 재교육 기간 및 방법, 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1. 현직교사 재교육의 운영 주체

현직교사 재교육을 통한 통합운영학교 교원 자격 취득 활성화를 위해, 우선 현직교사 재교육의 운영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이 원고에서는 현직교사의 통합운영학교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을 때, 현행 교원양성체제에서 초·중등학교급 간 복수 자격 취득이 가능한 한국교원대학교를 최초의 재교육 운영 주체로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향후 통합운영학교의 전국적 확대와 함께 초·중등학교급 간 복수 자격 보유 교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경우 범위를 넓혀 현직 중등교사의 초등 복수 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운영 주체는 각 지역별 교육대학을, 현직 초등교사의 중등 복수 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운영 주체는 각 지역별 지방거점 국립 사범대학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현직교사 재교육을 통한 통합운영학교 교원 자격 취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원양성체제에서 초·중등학교급 간 복수 자격 취득이 가능한 한국교원대학교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급 간 복수 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직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급간 복수 자격 취득 기회도 새로이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래 통합운영학교의 수가 증가하고 초·중등학교급 간 복수 자격 보유 교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경우, 현직교사의 재교육 운영 주체를 한국교원대학교 한 곳으로 지정한다면 교육 공간 및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교사들의 교육 기회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각 지역별 지방거점 국립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각각 초등교사 및 중등교사 재교육의 운영 주체로 추가하고, 한국교원대학교를 초등 및 중등 현직교사 재교육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곳으로 유지하며 현직교사의 재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수 있다.

현직 중등교사의 초등 복수 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운영 주체는 각 지역별 10개 교육대학이 될 수 있다. 이들을 각각 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하여 수도·강원권의 현직 중등교사 재교육은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청권의 현직 중등교사 재교육은 청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가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호남권의 현직 중등교사 재교육은 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가, 영남권의 재교육은 부산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가 담당하게 한다.

현직 초등교사의 중등 복수 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운영 주체는 각 지역별 11개 지방거점 국립 사범대학이 될 수 있다. 역시 이들을 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하여 수도·강원권의 현직 초등교사 재교육은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강원대학교, 충청권의 현직 초등교사 재교육은 충북대학교와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가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호남권의 현직 초등교사 재교육은 전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영남권의 재교육은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가 담당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최초의 현직교사 재교육 운영 주체인 한국교원대학교는 충청권 현직 초·중등교사 재교육에 함께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미래 현직교사 재교육 담당 대학 및 권역은 아래

<표 7>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7> 미래 현직교사 재교육 담당 대학 및 권역

초등 복수 자격 취득 담당	중등 복수 자격 취득 담당	현직교사 재교육 권역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수도·강원권
경인교육대학교	인천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청권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북대학교	호남권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영남권
대구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경상대학교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국립대학 법인이나, 지방거점국립대학으로 간주함.

2. 재교육 방법 및 기간

현직교사 재교육을 통한 학교급 간 복수 자격 취득 기회는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제공한다**. 학교급 간 복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교사는 단수 자격을 가진 교사보다 초·중등 연계 교육과정 운영, 통합운영학교 교사 직무 수행에 더 적합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예비교사들이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유아·중등 57, 초등 68학점으로 평균 60학점이며 이를 통상 3년의 기간 동안 이수함을 고려하였을 때, **현직교사 재교육을 위한 이수학점은 30~50점으로 하되, 교육 기간은 1~2년으로 조정하고 교육실습은 1회 운영**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현직교사의 재교육 이수학점 및 기간을 예비교사보다 적게 정하는 것은 현직교사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으며, 교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수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교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기에 **압축적인 재교육을 통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교육 방법 및 기간을 고려할 경우, 단기간에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할 것이므로 **계절학기의 활성화**를 통해 교사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온라인 강좌나 야간 수업의 확대**를 통해 교사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재교육을 통해 초등 혹은 중등 복수 자격을 취득한 현직교사는 복수의 학교급 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교사의 소속 지역 또는 희망 지역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초등교사가 중등 복수 자격을 취득하고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할 경우, 해당 교사를 고등학생 수업에 바로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초등교사가 중등 교과목의 복수 자격을 취득하고 중학교 1~2학년 수준의 수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과목의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이들 중 하나를 주전공으로 택하여 사범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한 후 현직에 투입되는 고등학교 교사의 수업을 당장 맡게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중등 복수 자격을 취득한 초등교사는 중학교 수업을 우선 맡게 하여 통합운영학교 운영에서 개선 과제로 지적하였던 ‘초·중등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를 지향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수업은 이후 추가적인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사가 초등 복수 자격을 취득하고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할 경우, 해당 교사에게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이나 수업을 맡게 하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교과 지도가 중심이 되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초등 복수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기초 생활습관 형성 및 생활 지도가 중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담임 또는 수업을 바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초등 복수 자격을 취득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과목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지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하거나, 초등학교의 특정 교과 시수를 우선 담당하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3. 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앞서 제안한 것과 같이 현직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통합운영학교 교원 자격 취득을 제도화한다고 하더라도, 현직교사들의 통합운영학교 교원 자격 취득 및 통합운영학교 근무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재교육의 활성화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재교육을 통해 통합운영학교 교원 자격을 취득하여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하고자 하는 현직교사들에게 적합한 유인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직교사의 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현직교사가 재교육을 통해 복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교원인사제도에서 초·중등 교사는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1호봉이 승급된다. 이를 참고하여 현직교사가 초등 혹은 중등 복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 호봉을 승급하되, **몇 호봉을 승급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교사의 재교육 기간 및 이수학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의 경우 연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기간은 시·도별로 상이하나 대략 4주 정도임을 감안하였을 때, 이 원고에서 제안하는 교사 재교육의 기간은 1~2년이므로 더 높은 호봉 승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앞서 제시한 것처럼 재교육을 통해 초등 혹은 중등 복수 자격을 취득한 현직교사는 **해당 소속 지역 또는 희망 지역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근무 수당이나 승진, 전보 가산점을 지급하는 것을 추가적인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고의 통합운영학교 근무 교사 면담결과에서 알 수 있듯 승진 혹은 전보 가산점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승진에 목적을 두고 있거나 전보 등 인사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하려는 교사가 많아지는 것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통합운영학교에 오는 것을 유도하면서도 이들에게 유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수 자격 취득 이후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추가적인 근무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의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유력하게 고려할 수 있다.

학교급 간 복수 자격 취득 교사에 대한 호봉 승급, 통합운영학교 근무 교사에 대한 근무 수당 지급 이외에, 학교급 간 복수 자격을 취득한 **현직교사들이 통합운영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학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앞선 통합운영학교 교사의 면담결과에서

알 수 있듯 초·중등 교육과정의 분절, 교사의 수업 및 업무 부담 과다, 지원 혹은 혜택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교사들은 통합운영학교에서의 근무를 꺼리고 있다. 이에 우선 **학교급 간 겸임 발령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초·중등 수업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급 간 복수 자격을 보유한 교사들이 학생 교육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학교 업무정상화를 통한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행정지원인력의 충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발전 과제

이 원고에서는 통합운영학교 교원의 양성을 위한 발전 과제를 최종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이에 **‘통합운영학교 교원 별도 양성과정 신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초·중등 교육과정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운영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운영학교 교원 별도 양성과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통합운영학교 교원 별도 양성과정이란 예비교사들이 초·중등학교급 간 복수 자격을 취득하면 통합운영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통합운영학교 근무 교원 별도 선발제도라 할 수 있다.** 통합운영학교 교원 별도 양성과정은 현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교사의 초·중등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과정을 별도의 양성과정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초·중등학교급 간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한 예비교사들은 별도의 통합운영학교 교원 임용 전형을 통하여 통합운영학교에 발령을 받은 후 근무하게 된다. 따라서 통합운영학교 교원 별도 양성과정이 신설된다면, **통합운영학교에서 근무가 가능한 교원은 현재 일반 초·중등 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 중 재교육을 통해 학교급 간 복수 자격 취득을 한 교사와 학교급 간 복수 자격을 취득하고 통합운영학교에 발령받은 초임교사가 될 수 있다.**

통합운영학교 교원 별도 양성과정의 신설을 위해 한국교원대학교의 초·중등학교급 간 복수전공 이수 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으나, **이수 방법 및 학점, 복수전공 지원자 정원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수정,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우선 통합운영학교 교원 별도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과정에 지원하는 **예비교사 스스로가 초등을 주전공으로 하여 중등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할지, 아니면 중등을 주전공으로 하여 초등을 복수전공으로 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비교사가 초등을 주전공으로 하여 중등을 복수전공으로 하기를 선택한다면, 향후 근무하게 될 통합운영학교에서는 초등학교급에서 주로 근무를 하며 중·고등학교에 수업지원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중등을 주전공으로 하여 초등을 복수전공으로 하고자 한다면, 중·고등학교에서 주로 근무를 하며 초등학교에 수업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전공 및 복수전공 분야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예비교사들이 이수해야 하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을 적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교원대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결과를 보았을 때, 초등을 복수전공으로 택한 예비교사의 경우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많아 수업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복수 자격 취득을 위해 학교를 추가로 1~2년을 더 다니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졸업을 위해 결국에는 복수전공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 것을 보았을 때, **초등 복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68점)의 경감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는 반대로 중등을 복수전공으로 택한 예비교사의 경우 오히려 중등 복수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학점(57점)의 확대를 주장한 것을 보았을 때, **복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주전공 및 복**

수전공 이수학점의 적정화는 꼭 해결되어야 할 숙제일 것으로 보인다.

복수전공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계절학기를 활성화**하여 예비교사들이 학점 이수를 조금 더 수월하면서도 깊이 있게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학교급 간 복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예비교사들은 추가 학점 이수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느끼지만, 무엇보다 복수전공 과목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에 대해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계절학기를 활성화하여 복수전공의 과목을 폭넓게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설한다면**, 예비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과목 선택의 폭도 넓힘으로써 복수전공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통합운영학교 교원 별도 양성과정을 통해 해당 과정을 이수한 예비교사들이 **향후 통합운영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할 것이라면**, 현재 10%로 제한되어 있는 초등교육과 복수전공 과정 이수자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초등 복수전공 과정은 부족한 선발 인원으로 인해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며 높은 학점을 지닌 예비교사들도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앞선 면담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등 복수전공 과정 이수자의 정원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통합운영학교 교원 임용의 **풀(pool)**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

끝으로 ‘통합운영학교 교원 별도 양성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교원 임용체제에서,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은 분리되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초등 자격을 취득한 교원은 초등학교로, 중등 자격을 취득한 교원은 중·고등학교로 가며, 초·중등학교 급 간 복수 자격을 취득한 신규 교사의 통합운영학교 임용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합운영학교 교원 자격을 취득한 신규 교사를 해당 지역의 통합운영학교에 발령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중등 교육과정의 유기적인 연계 운영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제고, 미래형 인재 양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통합운영학교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능한 교원이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 원고에서 제안하는 현직교사 재교육을 통한 통합운영학교 교원 자격 취득 방안과 통합운영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발전 과제를 실현하여, 통합운영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체제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 (2010. 1. 10.). **농산어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 육성 -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계획」 수립** -
- 교육부 (2021).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김기수·김현자·김성기·김승보·황준성 (2019). **미래교육을 위한 학제 혁신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현주 (2019). 강원도 유·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의미와 의의 실행 전략. 제3회 강원교육포럼.
- 남수경(2009). 유·초·중고등 교육의 학교급간 연계교육 현황진단.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 성열관·강에스더·이형빈 (2019). **저출산 시대 도래에 따른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효율적 편성·운영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안주열 (2012). 정부의 학교통폐합 정책에 관한 헌법적 고찰. **법과인권교육연구**, 5(2), 67-86.

이지유·이종국 (2020).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실태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교육녹색환경연구**, 19(4), 50-59.

이화여자대학교 (2021. 3. 3.).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장봉석 (2019).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22(1), 1-24.

정미경·이상은·박상완·민윤경 (2021).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실행 모형 탐색. **교육과정연구**, 39(1), 65-92.

제주대학교 (2020. 2. 25.). **제주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한국교원대학교 (2021). **2021년도 교육과정 안내자료**.

한국교원대학교 (2020. 11. 18.). **복수전공 이수자 선발 및 이수에 관한 지침**.

한국교원대학교 (2020). **학사관리과 제공 자료**.

<인터넷 사이트>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06010001607>

경인일보 도심 첫 통합운영 인천 경연초등학교 '개교 이상무'

http://www.gne.go.kr/board/view.gne?boardId=workroom&menuCd=DOM_000000105022000000&contentsSid=216&dataSid=1161499

경상남도교육청 업무자료실 통합운영학교 현황(2020년 3월 기준)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1/99347347/1>

동아닷컴 (2020. 1. 21.). 성남 판교에 '초등·중등 통합학교' 생긴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3>

에듀인뉴스 (2019. 8. 31.) 서울 첫 초·중 통합학교 '해누리초중이음학교' 개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0695&ref=A>

kbs 뉴스 (2020. 7. 23.). 전남 초·중·고 절반이 소규모학교... '통합학교'로 활로 모색

<https://now.sen.go.kr/2018/11/03.php>

지금서울교육 (2018). 통합운영학교의 설립 의의와 비전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통계청 (2020. 8. 27.). **장래인구특별추계**.

星 斗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

김대현(부산대)

성열관 교수님의 발제문을 읽고 토론문을 작성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쉬운 것은 사실적 근거와 탄탄한 논리로 발제자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어려운 점은 글을 읽어가면 어느새 발제자의 주장에 공감을 하고 동조를 하게 되어 쟁점을 찾아서 이견을 제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번 발제에 대한 토론도 마찬가지이다.

토론자는 발제자가 제시한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연계의 다양한 형태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통합운영학교를 독립적 학교 유형으로 법제화하고, 교육과정 특례제도를 도입하며, 초·중등 교원의 교류 지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하여 상대방과 다른 주장을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일이다. 토론의 의미가 이러하다면 여기서는 토론을 할 수가 없다. 성열관 교수님의 주장에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은 토론이 아니라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추가 제안’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자 한다.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학교급별, 학년별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교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학이나 과학 등 일부 교과에 경우에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 양과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학생들이 학교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부족하면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더욱 어려워진다. 국가 차원에서 교과의 학년별 학교급별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통합학교운영에 도움을 준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 교과 담임제를 확대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는 영어와 체육 등의 일부 교과를 제외하면 담임교사가 전 교과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교과에서 학습해야 할 개념 수가 매우 많고, 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충분한 학습 시간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중등교사에 비하여 교과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학습을 할 기회가 적은 초등교사들에게 전 과목을 내실있게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 중등학교 교사들이 교과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교과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하여 중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의 교과 수업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학교운영에서는 필수적인 일이 된다.

셋째, 특정한 교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는 상담 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의 특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있다. 미국에는 음악, 미술, 연극 등의 경우에는 이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지도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연속선 위에서 교과 전체를 꿰뚫어 보고, 기획과 연출 및 실기 기능이 뛰어난 교사들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학교급을 막론하고 이들 교과에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이 맡도록 하는 것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넷째, 기초와 기본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성열관 교수님의 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아무리 통합운영학교에서 우수한 교사를 모시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살던 지역을 떠나는 일을 막기는 어렵다. 진학을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원인을 찾아서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통합운영학교에서 기초와 기본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서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가려 뽑아서 집중적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기초와 기본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파트너십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통합운영학교의 존립과 미래는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통합운영학교 존재의 이유와 가치 등을 바르게 인식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공동 주체로서 자각을 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와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통합운영학교의 이슈와 대책에 대한 토론

김규태(계명대학교 교육학과)

I. 발제문에 대한 토론

통합운영학교가 도입 운영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공문도 예산도 따로 내려오고, 같은 업무도 따로 하는 한 울타리 두 학교’, ‘교사의 자격이 달라, 발달 과업이 달라, 수업 시종이 달라, 학급담임과 교과담임이라는 교직 구조와 문화의 차이로 교육과정의 연계와 통합이 어려운 학교’라는 특징들은 그대로이다. 다만, 통합운영학교가 적정규모학교, 1면 1개교 차원에서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정책으로 인식되던 것이 신도시, 재개발 등으로 인한 도심 지역에서도 통합운영학교가 도입 운영되고 있는 점과 교육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학교체제의 다양화 차원에서 한 정책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는 점은 20년 전과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토론자는 최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경북형 통합운영학교 운영 방안” 용역 과제를 맡고 있다. 토론자는 발표자들께서 제기한 통합운영학교의 현황, 장단점, 이슈와 대안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최근 연구진은 경북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면담 및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발표자들께서 제시한 통합운영학교의 장단점, 이슈 및 대안들과 대동소이하며, 심지어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도 일맥상통하였다. 따라서 본 토론문에서는 최근 경북의 통합운영학교 관계자들과의 면담 및 협의회에서 제기된 이슈들과 대안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토론자는 발표자들께서 제기하신 대안들 중 통합운영학교 교사 자격이나 관리 차원에 대한 토론하고자 한다. 우선, 김도기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초등과 중등 복수자격 취득 기회 제공하는 교원대 학사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이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의 통합, 교사자격체제의 개편 등에 대한 국가 수준의 검토 과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와 함께 토론자가 추가하고 싶은 방안은 전남교육청에서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를 위해 ‘중·초 교사(중등과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나 연구학교의 취지를 이해하고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교사, 또는 통합운영학교 경력이 있는 교사를 선발하여 통합운영학교의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및 운영 모델을 모색하겠다는 아이디어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초·중등 간 수업 지원이나 교육과정 통합 운영에 대한 소극적인 교직원문화나 교사 간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 통합운영학교에서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보다 연구학교를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 효율적,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판단된다.

교사자격 문제에 더불어 현직 교사들의 직무연수나 배움의 공동체 및 장학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연구진이 면담 과정에서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이나 교사 및 행정직들이 전보 발령받은 학교가 통합운영학교인지 모르고 부임했다거나, 같은 울타리에서 근무하지만 초등과 중등 교직 구조나 문화, 교육과정이나 수업 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전보 발령 시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사전 이해를 위한 협의회나 연수를 실시한다거나, 현직 교사들에게 학교급 간 교직원문화나 교육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교를 위한 직무 연수나 배움의 공동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통합운영학교 내의 ‘교사 간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통합운영학교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II. 경북 통합운영학교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

경북에는 초중 통합운영학교 9개교와 중고 통합운영학교 7개교 등 16개가 운영되고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은 통합운영학교하면 초중 통합운영학교로 인식하고 있다. 연구진은 4개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지품초중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 중인데, 최근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 연구진들이 참여한 통합운영학교 간담회가 지품초중학교에서 열렸다. 본 토론문에서 정리된 것은 심층면담과 간담회의 결과이다.

1. 통합운영학교의 장단점

<통합운영학교의 장점>

영역	내용
교육환경 및 여건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학업스트레스 낮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불필요
교직원	•근무만족도가 높고, 교사수가 적어서 빠른 의사결정 가능
교육과정(수업)	•체험활동 공동운영 가능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가능 •방과후수업의 수준별, 개인별 지도 가능
시설 및 설비	•시설 및 기자재 공동활용 가능(급식소, 통학버스 등)
인간관계 및 학생지도	•교사-학생간 친밀도, 신뢰도가 높으며 생활지도의 스트레스 적음 •학생수가 적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 가능 •전교생들끼리 모두 알고 친하며 학교폭력이 거의 없음 •교사-학부모간 유대관계가 좋으며, 민원이 거의 없음 •초중 교사들간 학생 정보 공유 수월
학교(교직)문화	•타 학교급에 대한 이해도 제고 가능
행정업무	•업무추진과정에 상호 협력 및 협조 가능
예산	•예산의 탄력성·융통성으로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 •시설투자 및 관리 용이
학교 행사	•공동행사 가능(입학식, 졸업식, 학교설명회 등)
기타	•방역관리 수월 •각종 위원회 조직 수월 및 연계성 확보 가능

<통합운영학교의 단점>

영역	내용
교육환경 및 여건	•열악한 교육여건 및 사교육 시설 부족 등으로 다양한 경험 부족 및 학습격차 확대 •다문화 가정 및 결손가정이 많음 •적은 학생수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발달 어려움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 많이 소요
교직원	•업무 접근 방식이 다르고, 상이한 교직문화로 인해 타 학교급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갈등 발생(업무 협조 체계 구축 미흡) -교장과 교감간 상이한 업무 처리 방식, 초중등 교사간 업무 접근 방식의 차이 등

교육과정(수업)	•(초등)복식학급 운영의 어려움, 학습격차 해소의 어려움 •방과후 강사 확보의 어려움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방과후 수업운영이 안되며 안정적인 운영의 어려움 •공동활동(방과후 등)의 경우 학생의 발달단계, 수준차이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시설 및 설비	•시설 공동활용시 어려움(타 학교급과의 협의 필요, 눈치)
인간관계	•통합활동(예: 체육 등)시 중학생이 초등학생 무시 •학생수가 적어서 다양한 교우관계 부족, 사회성 발달 저하 •다문화 가정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학교(교직)문화	•상이한 초중등 교직문화
행정업무	•초중등 업무의 구분으로 행정 업무 과다(공문, 결재 등) •업무의 일관성 부재로 혼선 유발
예산 및 행정실 업무	•예산의 규모만 적지 업무량은 동일하며, 동일한 항목(행사)에 대해 초중등 예산 구분되어 있어(학교회계 분리) 공문기안, 결재 등 별도로 이루어져서 업무가 2배임 •업무의 연속성 결여
기타	•시중의 차이(40분, 45분)로 인한 혼란 •상급학교(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두려움 •초중학교간 거리(교무실, 행정실 등)로 인한 불편함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명확한 안내서 부재

2. 개선 요구 사항

- (A 학교) 학생수 확보(학급수 유지)가 최우선 과제. 중학교 교사의 초등수업 지원(특히, 예체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중등 교사 추가 배치 및 순회교사 해소 등). 초등 복식학급 기준 완화(현재 4명) 및 인센티브 필요(승진가산점 및 수당 등). 어린이집 병행 운영을 통한 학생 수 조기 확보 필요
- (B 학교) 초등과 중등의 교직문화 차이 및 인식 개선이 시급. 관리자들간(교장과 교감) 전문성 차이로 인한 갈등해소 방안 필요. 시중의 차이 규정 완화 필요. 초등 복식학급에 대한 추가 지원(보조교사 및 도우미) 필요. 서로 다른 학교급간 통합이 아닌 동일 학교급을 광역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예: 영덕과 영해 등 비슷한 지역의 중학교 3개를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여 운영 등). 교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사택 확보. 학교급간 정보 공유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학생 생기부,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등) 필요
- (C 학교) 초중등 교직문화의 차이로 교사들간 융화 어려움 및 상호이해도 제고 필요. 교사의 만족도가 높지만 소규모때문이지 통합운영학교의 만족도는 아님. 통합운영학교 공통 매뉴얼(관리자 지침서 등) 필요. 학교급별 교감 1인 배치 및 중학교 과목별 교원 1인 배치 필요
- (D 학교)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교직원의 이해도 제고 필요(사전연수, 지침서 등). 초중등 교직원간 상호교류 활성화 노력. 실질적인 통합 필요(행정실만 통합, 교사와 건물은 분리). 공문 및 예산 통합(기본운영비 외 예산의 자율성·융통성 부여, 학교회계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등)

Ⅲ. 통합운영학교의 이슈와 대책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

토론자는 연구 과정에서 분석한 관련 선행연구들과 경북 관계자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통합운영학교의 이슈와 개선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통합운영학교는 학교와 학교 간 명목적 통합에 불과하다. 서로 다른 학교 이름을 중간 방점 하나로 연결한 것에 불과하다. 교육청에서는 통합운영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따로따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학교(장)은 공문 접수, 처리, 보고를 따로따로 하고 있다. 2개 학교 병존, 두배, 중복 업무를 보지만 업무를 볼 교사나 행정직은 단설학교보다 적다.

개선안)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는 공문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여 통합운영학교를 별도의 학교 유형이나 그룹으로 분류하여 한 학교(교장이 소속된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여 학교 공문 및 업무 시스템의 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에듀파인은 통합운영학교에 적용되고 있지만, 나이스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다. 나이스에서의 통합운영학교는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나이스 구축 작업(2023년에 개편 예정) 시 통합 운영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통합운영학교의 업무 가중과 중복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학교에 교무행정사(공무직)을 의무 또는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예산 결산을 따로따로 하고 있다. 예산도 학교별로 따로 배정되어 한 울타리 장비, 시설, 교육과정 등 여러 활동들을 공동 기획 및 시행하기도 어렵다.

개선안) 교육청에서는 통합운영학교를 고려한 공동 일반경비, 시설 및 설비, 교당 및 급당 경비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업무 및 예산 편성 지침 등을 개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교사는 초등학교로, 중등교사는 중학교로 발령나지, 통합운영학교로 발령은 나지 않는다(보 건교사 포함). 초등 및 중등 교사는 자격이 달라 교차 수업을 담당할 수 없다. 학급수가 적어서 모든 교과 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고, 순회교사가 담당하는 교과가 많다. 초등과 중등의 수업이나 지도 방식이 담임교사제와 교과담임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선안) 교원대의 초등과 중등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의 확대와 중초 교사의 활용, 통합운영 학교 전보 희망 교사나 유경험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수업시중(40분과 45분) 차이로 수업이나 학교시설 공유가 쉽지 않다. 수업 시간이 40분, 45분에 따라 수업 시중이 달라 공동 시간표 작성, 공통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나 교사 수업 지원 등을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강당, 시설 활용 등을 엇갈리게 편성한다. 예를 들면 월, 수는 강당 초등, 화, 목은 중학교 편성한다.

개선안) 초중등 수업 편성 운영은 교육감 및 학교장의 재량 사항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선 학교에서는 관행으로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다. 아울러 일부 학교에서 운영 중인 수업 후 휴식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것을 권장한다(예를 들면, 초등학교 40분 수업 15분 휴식하면 중학교와 동일하게 운영)

다섯째, 통합운영학교는 1교장 2교감제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장이 초등이면 중등에는 교감이 배정되고 있다. 그래서 교장은 교감 역할까지 담당한다. 다른 학교급 교직 구조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며 다른 학교급 교육활동에 대해 전문적 관리는 힘들며, 교사들은 교장과의 갈등도 빚기 쉽다.

개선안) 교장은 1인으로 하더라도 교감은 초등, 중등 교감 1인씩 배치함으로써 다른 학교급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교감 배치 시 전문성 등을 고려해 통합운영학교 경험자를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섯째, 통합운영학교는 소규모학교인 관계로 교사들의 적정 시수 확보를 위해서 순회교사로 타학교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소속감이나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개선안) 통합운영학교 교사들은 순회교사 등을 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순회교사가 면제되는 대신에 공동 프로그램이나 교차 수업 지원 등을 유도하여 통합운영학교의 실질적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과 중등 교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과과정, 수업, 행사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 매뉴얼 개발 보급(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이 필요하다.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학사 및 관리 운영 지침도 마련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원 내신 및 전보 시에도 통합운영학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통합운영학교로 발령 시 사전 연수나 협의회도 없고, 발령 이후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직무연수를 받아 본 적이 없다.

개선안) 통합운영학교로의 내신 전보 시 해당 교직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연수가 필요하다. 아울러 초등과 중등 교직문화와 교육과정 이해 등을 위한 교직원 직무연수, 학교 장학 및 컨설팅 정기 실시, 공동 문제 협의회 등을 실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초중등 문화 공유와 교사 간 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기적인 통합운영학교 워크숍과 배움공동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전남의 통합운영학교, 그 방향성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교육추진단장 변윤섭

1. 미래 교육의 화두, 통합운영학교

20년 전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AI가 지배하는 세상은 너무나 먼 미래, 아니 상상의 세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일론 머스크의 자율 주행 자동차는 상용화가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는 로봇의 시대에 인간이 서야 할 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래의 기술이 인간의 삶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것이 예측 가능한 가운데 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학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지식의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이를 활용한 직업마저도 AI가 대체하게 될 상황에서 타율적 주입식 교육과 단순 암기에 힘을 쏟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 낭비일 것이다. 대신 프로그래밍으로 도출해 내기 힘든 상상력과 창의력, 끊임없는 호기심, 인간에 대한 소통과 이해, 지식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 능력 등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 또한 그러하다. 비단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한정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특히 새로운 변화로부터 소외된 학생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능력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가 근본 화두가 되어야 한다.

통합의 원래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기존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에는 부합하는 말이다. 그러나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통합의 의미는 ‘아동 및 학생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을 종합하고 통일하는 일’로 해석되어야 하고 통합운영학교 또한 이것이 주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 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전남이 표방하고 있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에는 초·중, 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제의 유연화를 꾀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II. 전남의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 방향과 계획

7차 교육과정 이래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면서 학교급별 구분이 아닌 학년제 개념에 따라 초1부터 고1까지 학년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는 모든 학생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교육 내용의 중복이나 비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통합운영학교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맥락을 함께 하여 전남의 미래형 통합운영학교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들의 연계를 통한 교육 경험의 확대 및 학생 개인별 성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의 실현이다. 시설 등의 물적 자원을 통합 운영하여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으나 이것이 최우선의 가치는 아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오히려 통합운영학교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선순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더불어 지역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마을과 학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때 학령 인구 감소에도 지속가능한 교육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의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 속에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신규 지정
2. 기존 통합운영학교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 교육활동 연계 중심의 미래지향적 통합운영학교로 운영 방식 개선
3. 통합운영학교의 법적 독립성을 위해 법령 개정 추진 등 제도적 보완에 주력하고 미래형 모델 창출, 안착 및 확산 단계로 점진적 추진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 단계〉

기반 조성 (1단계) 2021년	모델 창출 (2단계) (2022년 ~ 2024년)	안착 및 확산 (3단계) (2025년~)
·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 통합운영학교 제도 개선 · 기존 통합운영학교 운영 개선 ·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신규학교 지정	·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운영 · 지역별 특화 모델 창출 · 통합운영학교 지원 강화	· 통합운영학교 성공 모델 확산 ·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안착 ·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구현

이를 위해 우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4대 과제를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 ①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1)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자료 개발
 - 2)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 및 자율학교 지정
 - 3)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현장지원단 운영
- ② 교직원 배치 및 조직 운영
 - 1) 통합운영학교 교직원 인사관리 기준 개선
 - 2) 통합운영학교 교직원 정원 배정기준 개선
 - 3) 통합운영학교 교직원 연수과정 운영
 - 4) 통합운영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5) 통합운영학교 겸임수당 지급 기준 정비
- ③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 1)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 2)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통합운영학교 지원
 - 3) 유휴공간 활용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 ④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교육환경 최적화
 - 1)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시설 구축
 - 2)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 개정
 - 3) 통합운영학교 행정관리 지원 자료 개발
 - 4) 통합운영학교 행정관리 현장지원단 운영

Ⅲ. 갈 길이 아직 먼 이유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는 무수하고 학령 인구의 절벽화에 대한 다른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운영학교가 도전해볼 만한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혁신적 변화에는 무수한 저항과 논쟁이 뒤따르는 것처럼 이 정책 또한 안착하기에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첫째, 인식의 문제이다. 통합운영학교를 자본주의 경제 논리의 결과로 받아들

이다 보니 통합운영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이는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저항을 키우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것이 지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학교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학교를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본질이 아님에도 교원들은 교사 정원 감축을, 학부모는 교육의 소외를, 지역민은 지역의 공동화를 걱정한다. 또한 초등과 중등 교사 문화 사이에 보이지 않은 견고한 벽과 공감대의 부재는 교육과정 재구성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어 완전한 교육과정의 통합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제도의 문제이다. 기존의 체제와 법령들의 견고함이 새로운 정책의 실천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운영학교에서 급별 학생들을 자유롭게 교차지도 하려 해도 교원 자격이 달라서, 수업 시종 시간이 달라서 현재 체제하에서는 코티칭 외에 교과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가르칠 것이 지나치게 많고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 교사의 주도권은 없는 경직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또한 교과나 학년을 넘나들어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할 통합운영학교의 걸림돌이다.

셋째, 행정 업무의 문제이다. 통합운영학교가 학교의 종류로 인정받고 있지 않다 보니 별개의 학교로 인식이 되어 각종 정책 및 사업, 회계 업무 등을 모두 이중으로 하게 되므로 통합운영의 이점은 고사하고 오히려 교직원들의 업무만 가중될 수 밖에 없다.

IV. 통합운영학교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무조건적 평등이 아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모두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궁극적 목표이다. 현재 통합운영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운영학교를 학교의 한 종류로 법제화해야 하고 교육과정 연계 지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통합운영학교의 정체성을 법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은 이상 일반 학교와 다르게 운영할 만한 근거가 없어 이름뿐인 통합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9학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연계 지도를 하기 위해서, 교과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 교육을 위해서도 초중등 구별 없는 인적 자원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상호 교차 지도를 위한 법령 마련 및

복수자격의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급별간 교과 통합 및 무학년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완전한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야 한다.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맞는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하고 성취기준이나 평가 기준 및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의 기준 등을 완화해 주어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통합운영학교의 미래 교육을 위한 과감한 시설 지원책이 필요하다. 통합운영학교는 둘 이상이 통합되므로 모든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산술적 측면이 아닌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현재 증개축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통합되더라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학교 공간재구조화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 7조를 개정하기를 요구해 본다.

V. 맺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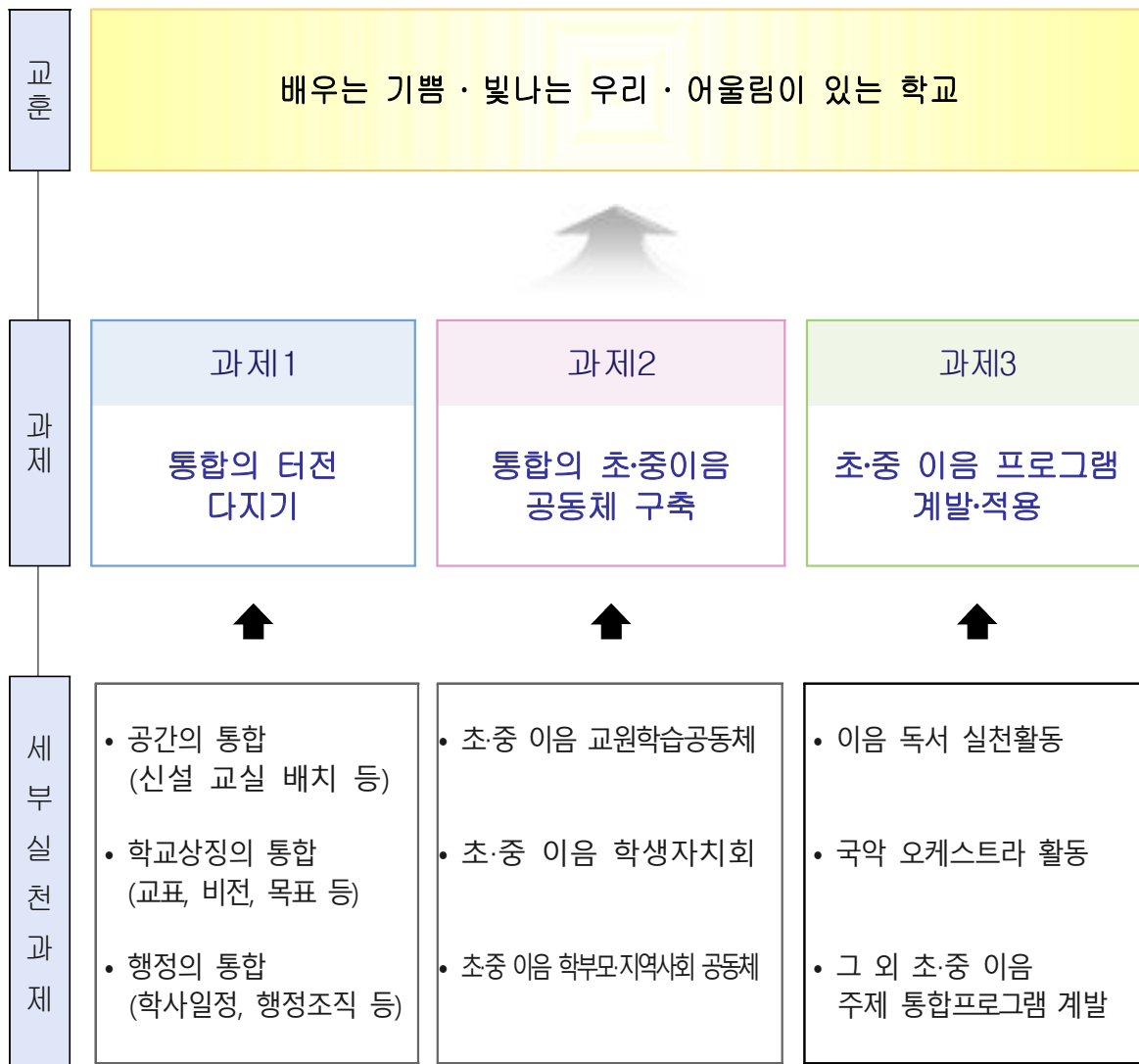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는 매트릭스 속 대사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하다.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상상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하여 우리 전담은 넘어야 할 많은 산이 있음에도 통합운영학교라는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과감히 내디뎌 보고자 한다.

강빛초·중이음학교 운영사례 중심으로 살펴본 통합운영학교 제약요인 및 정책건의

최창수(서울 강빛초중이음학교 교장)

1. 강빛초 · 중이음학교 통합운영 사례

1. 통합운영의 개요



2. 과제 [1] 통합의 터전 다지기

과업	실행내용	관련자료
공간의 통합	강빛초중이음학교는 2021년 3월 개교 학교로 시설 및 설비, 공간을 초·중이 함께 의논하며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건물의 구조를 파악하여 초·중이 협의하여 실별 쓰임새를 판단하고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한 최적의 공간 활용을 의논하여 정하고 있다.	1층
상징의 통합	교표, 교훈, 교육목표 등을 초·중등 교사 구성원의 충분한 토의를 거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하나로 통일하여 제작함으로써 초·중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ALT 01-1 강빛초중이음학교 ALT 01-2 강빛초중이음학교 ALT 01-3 강빛초중이음학교 ALT 02-1 강빛초중이음학교 ALT 02-2 강빛초중이음학교 ALT 02-3 강빛초중이음학교 ALT 03-1 강빛초중이음학교 ALT 03-2 강빛초중이음학교 ALT 03-3 강빛초중이음학교
행정의 통합	학교장, 행정실장 및 행정실 직원의 겸임을 비롯하여 학교 업무 분장에 있어서도 초·중이 협력하여 조직하고 있다.	교육지원팀 체육지원팀 성장지원팀 교육활동팀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교육기획부 교육기획부 교육연구부 교육연구부 생활안전부 생활안전부 학인부 학인부 정보홍보지부 정보홍보지부 자료문예부 자료문예부 진로교육부 진로교육부 (1~4학년) (1~4학년) 복합교육부 복지상담부 복지상담부 〈강빛 초·중 업무분장표 구성〉
행사의 통합	학사 일정 및 학교의 주요 행사를 초·중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였으며 『개교기념행사』, 『동아리활동』, 『자율휴업일』 등을 서로 조정하여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가. 학교 여는 날 (21.2월) 입학식 및 시업식 이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개방의 날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여 개교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선점 및 학부모 요구 사항에 관한 설문을 받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언으로 삼아 적극 검토한다. 나. 이음의 날 (21. 5월, 12월) 유·초·중 통합학교의 의미를 살리고 학교 구성원 간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학기는 어린이날 주간에 꽃시미, 놀이마당, 벽화그리기 등의 행사를 함께 하고 2학기는 세계시민교육, 국악오케스트라 발표회 등 활동을 통해 이음의 의미를 알고 실천한다.	

3. 과제 [2] 통합의 초·중 이음 공동체 구성

가. 초·중 이음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이음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연구·공동실천·나눔을 통한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중심의 협력적 학습 공동체 문화를 정착하고, 학교자율운영체제 역량을 강화하여 이음공동체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1) 초·중 교사가 함께하는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구성

독서인문교육과정탐구	교과와 진로교육탐구	영어교육 스터디	과학수업연구 공동체
수업나눔 공동체	생활지도연구 공동체	회복적생활교육 탐구	초중이음 교육과정 공동체

2) 초·중학교 이음과 배움, 성장에 초점을 두는 통합적 교육과정 연구

3) 교원학습공동체 활동 과정과 결과 나눔을 위한 장을 마련하여 일반화 함.

나. 초·중 이음 학생 자치회 운영

강빛초·중이음학교는 학생 자치회의 소통과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학생 자치회는 각 학교급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면서 매주 정례적인 방과후 자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제안·추진·보고·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1)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규칙·학교생활규칙·자치규약

2) 함께 만들어 가는 도서관(마·아·빛 독서활동과 연계)

3) 함께 만들어 가는 이음 자치회(학교의 각종 현안, 행사, 건의사항 등 해결)

다. 초·중 이음 학부모·지역사회 공동체 운영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상 기존에 6년, 3년 머무는 학교급이 9년으로 늘어남으로 인하여 학생에게는 보다 안정감을 주고, 교원에게는 학생 성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의 장점을 가짐과 동시에 특히 학부모·지역사회 구성원은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자발적인 학부모·지역사회 공동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려하도록 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통합 구성 및 운영: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초등과 중등에서 통합하여 하나로 구성·운영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확보와 함께 이음 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광의의 교육과정을 다양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

2) 자발적인 학부모 단체·지역사회 봉사활동 공동체 활성화: 학부모 연수의 초·중 공동운영, 초·중 혼합 커뮤니티 등이 자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려함.

4. 과제 [3] 초·중 이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가. 마(마음)·이(이음)·빛(배움) 독서 실천

도서관을 함께 신설해 가는 것을 시작으로 본교는 첫째, 수업과 만나는 독서·인문 교육운영으로 학생의 미래 역량 신장 및 유의미한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핵심 개념 중심 독서 프로젝트 수업으로 독서 기반 수업혁신을 실천한다. 셋째, 핵심 개념 중심 단일교과, 교과융합의 협력적 독서 활동 연계, 학생 주도 탐구활동으로 질문생성 및 문제 해결력을 함양 하는 방향으로 실천한다.

- 1) 독서 기반 프로젝트 수업 운영(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 기반 학습)
- 2) 독서 기반 프로젝트 수업 지원 체계 구축 운영(교원학습공동체 수업연구팀, 전문가 지원팀)
- 3) 독서 기반 프로젝트 수업 나눔(운영 과정 결과 나눔, 동료장학, 『강빛제』전시회 개최)
- 4) 독서 토론 동아리 활성화, (초등)책만나기 중점 운영, (중등) 첫 책쓰기 중점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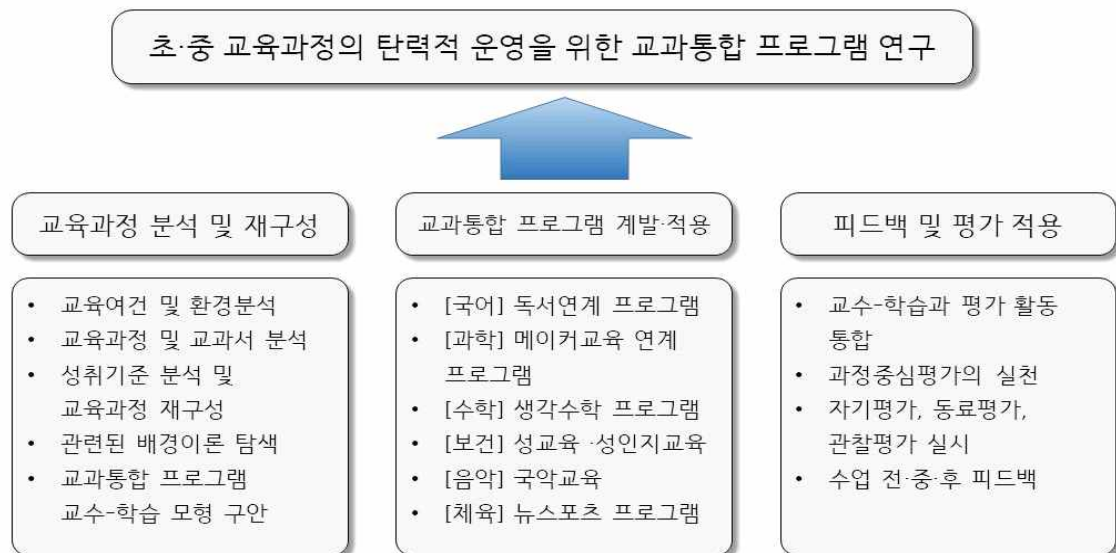
나. 마·이·빛 예술 활동 실천(초·중 이음 동아리)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교급 간 협력이 필요한 교육활동(국악 오케스트라, 방송부, 스포츠 클럽 등)을 함께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국악 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중학교 1~3학년 학생 중 국악에 관심이 있는 희망자를 중심으로 국악기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모아 통합의 결과물이 될 『국악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여 체험과 배움 속에서 “통합의 기쁨”을 경험하게 할 예정이다.

국악 오케스트라	이음 방송부	스포츠 클럽(동아리)
▶ 초5~6학년, 중1~3학년 희망자를 중심으로 국악기를 배우고, 함께 어울려 통합의 기회 마련	▶ 학교 소식, 홍보, 아침조회 운영 등 초·중 연합 동아리로 활동	▶ 동아리활동주년을 이용하여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고 멘토-멘티활동으로 성장 기회 제공

다. 초·중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을 위한 교과통합 프로그램 연구



5. 실제 운영 사례

운영 사례	실행내용
이음 독서 실천 프로그램	▶ (초등)은 책 만나기 (중등)은 책 쓰기를 중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 ▶ 중학생이 먼저 읽은 책을 [소개멘트] 넣어 초등학생에게 책 선물하고, 초등에서는 책을 읽고 나서 감상평 써서 감사 편지 쓰는 방법 등 ▶ 오후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책 읽어 주기, 도서관 안내 하기 등 병행. ▶ 초등은 독서 단원 / 중등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주제 중심 통합] 독서행사추진 ※ 지속적 생태환경 관련, 책표지 제작하기/ 나만의 책 만들기 등
어린이날 기념 이음의 날	▶ 유치원 벽화그리기: 유-초-중 함께 참여. ▶ 초1~2학년 놀이마당: 초6+중학생 자원봉사자의 놀이 활동 코너 진행. ▶ 도서관 상상화 그리기: 함께 꾸미는 도서관 상상하기 ▶ 이음 꽃길 만들기: 생태환경교육, 심성교육
국악 오케스트라	▶ 토요일과후 활동을 활용하여 초등(타악기), 중등(가락악기)등을 활용하여 국악 오케스트라 활동 운영 중. ▶ 국악에 관심 갖기 [주제 중심 통합 활동] 실행: 초등(실과)와 중등(기술)과목을 활용하여 국악기 만들기 체험하기, 음악(초/중)교과를 활용하여 국악협주 감상하기 등의 초-중 연계된 통합교육과정 운영. ※ 융합 교육을 이음 학교 실정에 맞게 적용
미래형 통합 메이커 교육의 실행	▶ 초, 중 메이커 프로그램의 공유 및 연계성 강화. ▶ 교사 협의회를 통하여 메이커 프로그램 연계, 계통을 파악하여 활동 선정. ※ 초-중 중복 없는 프로그램 체험 및 심화 발전 과정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음.
성교육.상담 등의 특수,상담,보건 교사의 협업	▶ 범교과 영역 담당 교사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 모색. ▶ 상담프로그램의 연계, 외부기관과 협업. ※ 초, 중 보건교사가 협력하여 건강검진기관의 섭외 등 업무 추진 등
지속가능한 생태교육 실천	▶ 초-중등 과학/실과 교과가 연계되어 생태교육을 실천. ※ 이음 텃밭 가꾸기, 꽃길 만들기,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전시회 등의 공동 개최 ▶ 초-중의 교육과정을 서로 공유하여 다양한 생태교육모델 창출 예정.
세계시민교육의 협력	▶ 주제중심 통합으로 초등(사회), 중등(일반사회,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을 협력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 ▶ 세계시민 발표회에 중학생이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초등학생이 관람 또는 보조진행자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이음교육 실천 예정.

東亞日報

2021-05-06 (목) a255

중학생 선배와 유치원생이 함께 등교... '한 지붕 두 학교'의 특별한 아침

서울 첫 유초중 통합운영학교
강동구 강빛초중이음학교 가보니

"내 고향이 빠르진 않지?"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중이음학교에서 중2인 김경민 양(14)이 박서준 군(6)의 손을 꼭 붙잡고 물었다. 교문 앞에서 할머니와 헤어진 서준 군은 자원봉사자 누나의 밑에 꼬개를 꼬며 왔다. "오늘 어린이날 맞아서 백화점까지 갔다 하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 교문에서 유치원 현관까지 걸어가며 김 양은 계속 말을 붙였다. 유치원에 도착한 뒤에는 서준 군이 실내화로 갈아 신는 것과 세면 숙정을 하는 것을 도와줬다.

김 양은 비롯해 이 학교 중학생 25명은 매일 아침 정문에서 유치원 후배들을 맞고 손을 잡고 유치원 현관까지 데려다준다. 서울지역 최초의 유초중 통합운영학교로 올 8월 개교한 이 학교만의 특별한 봉사활동이다.

통합운영학교는 '한 지붕 두 학교'로, 스무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급이 다른 학교가 시설·설비와 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음학교'라고 부른다. 전국에 113곳 있는데 서울은 3곳에 불과하다.

통합운영학교가 생긴 건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학생 수가 갈수록 적어지는 상황에서 각각 별도의 개별 학교를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서울도 학령인구 감소 추이가 빨



라지면서 통합운영학교를 늘린다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초등학교와 학부들이 '중학생에게 지나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것이다. 기존 학교를 처음 통합하는 사례로 서울 마포구 창천초중이음학교가 추진했지만 초등학교 학부 모듈의 반발로 지지부진하다.

강빛초중이음학교에서는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중학생들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돕는다. '동원맞이 봉사'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은 유아의 복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까지 받았다. 4일 최시양 군(5)이 마구 뛰어가자 봉사자 학생은 "넘어져, 손잡고 뛰자!"라며 쫓아갔다.

이날 중2와 초6 28명은 초1, 초2의 어린이날 기념

초중 연합 국악오케스트라 운영 체육대회엔 선배들이 도우미 활약

학령인구 줄어 통합학교 증가세 학생간 괴롭힘 있을까 우려 불거 교류하며 서로 돕는법 빨리 배워

년 소체육대회에 도우미로도 투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거리 두기를 위해 147기 경기종목이 체육관과 도서관, 복도 등 곳곳에서 진행됐는데 각 종목을 놀이방법을 가르쳐주는 역할이었다.



"이렇게 하면 실패야. 많이 넣으면 이기는 거 아니냐"가 먼저 시작할지 정하자, 가위바위보!"

병 앞에서 '두오' 화살이 떨어지지 당당한 최이석 군(12)이 웃으면서 말했다. 분명히 동생들을 만났기 전에 수없이 연습했는데 쉽지가 않다. 하지만 최 군은 1학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능숙하게 이끌었다. 흥재영 군(12)은 큰 라켓으로 공을 뛰기는 놀이를 한 뒤 진 팀에 "진 거 아니냐 진짜 잘했어. 한 번 한 번 열심히 했어"라고 말했다.

학교급이 다른 아이들은 서로 교류하며 도와주고 나누는 법을 스스로 배우는 모습이었다. 이날 소체육대회에서도 교사들은 나서지 않고 옆에서 지켜봤다. 중학교 이지영 교사는 "학교급이 다양하다 보니 아이들이 서로 도와주는 법

을 더 잘 배울 수 있다"며 "앞으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게 책을 추천하고 읽어주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1학년 신소을 양은 "오빠와 언니들이 무심치 않고 도와줘서 고맙다"며 웃었다.

강빛초중이음학교는 현재 초중 연합 국악오케스트라도 운영 중이다. 중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는 탓에 토요일 오전에 모여 연습 중인데 12월에 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동원맞이 봉사는 내년에 초1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창수 교장은 "학부모듈도 아이들이 형님들과 친해질 수 있다가 좋아하고 믿어준다"며 "같은 울타리 내에서 생활을 오래 하는 게 장점이 돼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나 기자 yena@donga.com

II. 통합운영학교 제약요인 및 정책 건의 사항

1. 행정적 부분의 통합운영학교의 문제

가. 1개의 학교 기관이 아닌 유/초/중이 병립해 있는 상황: 1개의 기관으로 인정필요

- 학교기관명이 초/중 이렇게 한 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초중이음학교 공식명칭 사용 어려움]
- 공문 및 업무관리시스템 조직도에서 각각 분리되어서 공문발송주소누락, 결재라인에서 검색해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
- 초,중을 같이 업무해야 하는 어려움: 신설+초-중 업무에 대한 곤란도가 높음 인식→ 지원자가 없어 신규직원을 발령→복잡한 유-초-중 회계업무→행정업무의 어려움 발생→구성원간 갈등 초래

나. 어떤 때는 1개의 기관으로 인정되어 제약이 생김

- 공용 IP(컴퓨터 네트워크 주소)가 1개 기관만 제공되어 내부망 구성 어려움(확대 요청)
- 물품 구입의 기준이 유+초+중을 1개 기관으로 인식: 통합하여 주문하면 모두 입찰해야 하는 절차 발생, 필요한 시기에 물품구입 어려움
- 예를 들어 초등은 컬러프린터가 학생 자료 제작상 많이 필요한데 중등+유치원과 연계되어 늘릴 수 없는 상황(컬러프린터 렌탈 구입에 대수 한계)
- 정보공시 등 통계에서 시설공유에 따른 보고 절차 시 혼란 생김
- 협의하여 도서관은 중등으로 설정했음에도 초등에서 도서관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초등에도 도서관이 시설로 잡혀야 하는 문제 등 발생 등

2. 교사 발령 및 수업 시간 등에 따른 문제

가. 초등 평균 주당 수업 시간은 23시간, 중등은 18시간으로 차이가 나며, 수업 시간은 초등 40분, 중등은 45분을 단위 시간으로 되어 있는 등 시정표 운영의 한계, 수업 시간의 공유·협업이 어려움.

나. 중등의 경우 각 과목 교사의 수업시수가 부족할 때는 순회교사를 나가야 하는데 초-중 자격증의 차이로 인하여 초등 교과전담수업에 협력수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시간을 인정 받지 못하여 다른 학교로 가야 하는 상황임.

※ 강사의 경우 담임교사의 임장 지도하에 중등자격증이 있으면 수업 가능

다. 초등은 다양한 교과를 폭넓게/ 중등은 전문교과 중심으로 되어 있어 둘의 특징을 협업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으나 교사 자격 문제로 논의만 있을 뿐 직접적인 수업 운영에 반영되지는 못함.

라. 통합학교 만에서라도 또는 통합학교를 위한 교원 자격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미래사회에는 도시형 통합학교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고려 필요

3. 교육과정 편성·운영 발전 방안과 관련한 사례

가. 초등은 담임교사가 전과목을 융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있음, 중등은 각 과목의 전문성에 깊이가 있음. 이런 특징을 잘 융합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통합운영학교라 생각됨 ▶ 발전 가능성이 큼

나. 교과통합 교육과정의 심화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주제중심통합”주제로 각 활동들을 융합하고, 이를 전문성을 지닌 중등의 각 교과 교사가 심화하여 발전 시킬 수 있음.

※ 문제점: 현행 자격증 체제에서는 초등은 초등학생만, 중등은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문제가 있어 잠시 강사로써 협력(CO티칭)은 가능하지만 독자적인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자격 제도임.

다. 현재 통합운영학교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육과정 분야는 “창의적 체험활동”부분임. “자율활동”이라는 자유도가 높은 시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영역임. 중학교 또한 “자유 학년제”라는 시간이 가장 통합운영이 용이한 시간임. 즉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임

라. 사례로 현재 강빛초중에서는 생태교육을 위해 초등에 전문성 있는 교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음의 날”을 통해 직접 꽃심기와 화초 다루기를 하였음.

※ 독자 수업을 못하고 중학교 교사와 협업 해당 초등교사는 초등수업시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발적인 봉사로만 인정받는 상황

4. 통합운영학교 교원 자격 관리 발전 방안

가. 통합학교를 위한 교원 자격의 다양화 필요: 현재 이화여대 복수전공/ 한국 교원대학교의 사례 등을 보면 교원 양성 체제 안에서 실현 불가능한 양성체제는 아님.

나. 교원 양성 체제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양성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함.

※ 현재 교대 커리큘럼에서도 2년은 초등교원의 전문성 + 2년은 심화 과정 강화로 운영 됨

다. 통합운영학교에 초빙교사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유-초-중-고 통합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라. 대부분 통합운영학교는 신설 학교로 발령 교사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합운영학교에서 근무

※ 신설 학교의 특성상 5년간 구성원 전출이 없어 초빙 교사 정원이 없고 연구학교(초반 3년)등으로 한정되어 특별한 유인 효과가 부족함.

※ 교원 조직 면에서 통합학교에 대한 전문성과 의욕을 가진 교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5. 교원자격증의 복수 전공 문제

가. 복수전공자가 “초중통합학교”에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드뭄

※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통합학교에 초등 교사발령은 전산배정, 통합학교가 대부분 신설 학교로 신규교사 또는 관내 초빙에 의한 인력배치에 의존하고 있음.

나. 복수전공을 확대하더라도 현행 임용제도 하에서는 합격 후에 임용받은 학교급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음(초-중 교류에 활용될 가능성이 낮음)

다. 교대와 사대의 교육 목적, 교직 이수자의 대량 양산, 임용고시에 합격 후 발령상황을 고려한다면 초-중 통합교육과정의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라. 교대의 경우에 교과별 11~13개 전공 과정이 있음. 이들에게 심화교육(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통해 중등학교 자격증을 부여할 수도 있음.

※ 자격증의 증가로 인하여 임용고시 경쟁률 증가, 사회적 갈등 등 예견됨

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원을 양성하고 이들이 가진 전문성을 “초중통합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함.

※ 교원 선발에 특수 목적을 부여하는 방안 등

6. “초중통합학교” 입장에서 시급한 과제

- 가. 현재 “초중통합학교”의 인사제도(초빙교사제, 혁신학교 수준의 인력풀 활용, 유임·재초빙 등의 근무연한 증대)의 개선을 통하여 초-중 통합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토대를 마련하여 확대함이 더 시급하게 필요함.
- 나. 자격증 문제는 교원의 협업(연구학교, 정책연구수행)을 통해 팀티칭이나 협력 수업으로 해결할 수 있음.
 - ※ 교사 정원을 혁신학교 수준으로 확대 필요
- 다. 근무교사 수 확대와 함께 수업시수를 줄이고 초/중 협력 수업에 대한 수업시수를 인정해 준다면 초-중 연계 교육과정의 계발-적용-피드백은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운영할 수 있음
- 라. 현재 초-중 통합학교에서는 학교행사-창의적체험활동-자치교육-일부교과의 주제중심 통합 등의 노력을 해가고 있음.
 - ※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배경 또는 토대, 예산 지원 등을 해 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
- 마. 초-중의 수업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15명 이하로 대폭 낮추고, 초등은 교과전담교사수 확대, 중등은 담당 교과 시수의 감축(인력을 더 충원)등을 통해 초-중 협력 수업을 위한 시수를 마련해 주면 어려운 자격증 제도의 개선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통합적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바. 연구학교 지정, 가산점 확대 등을 통해(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등 교육실습학교들처럼) 목적성을 가진 교사를 통합학교에 유인하고 그들이 통합교육과정을 먼저 이끌어 줄 수 있는 기반이 현재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됨.

통합운영학교 발전 방안¹⁾

장덕호(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통합운영학교 운영 상의 갈등 요소와 해결 방안

◦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상에서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현장의 어떤 교사는 다음을 토로하고 있음.

- 가. 교장, 교감 각 1명씩 배치되어 초·중등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학교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교직원 간의 갈등의 요소가 표출되는 경우가 있음.
- 나. 교감은 초등과 중등을 포함한 행정업무를 통괄하여야 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짊어져야 함.
- 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시간 조절이 특별하게 운영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 초등, 중등까지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함.
- 라.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중학교 검입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시스템적으로 교육활동과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마. 행정적으로 두 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설 면에서 초등용, 중등용으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 책임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바. 각종 행사 운영에서 교육과정 및 발달 단계의 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의견과 활동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체육대회와 축제 등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차이,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목표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출처: 박효숙(2018).

◦ 또 다른 교사는 이러한 갈등적 이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

- 가. **교육과정** 면에서 학교급의 특성을 이해하며 교육목표와 방법을 다르게 가지며, 수업운영의 차이와 역할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복수 자격교사를 배치하거나 복수 학교급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
- 나. **교원조직** 면에서는 학교급이 다른 관리자의 배치, 수업운영의 차이, 업무와 역할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교원들 간에 갈등을 느끼고 있으므로 **각각의 학교급 교감을 배치**해야 하며 상대 학교급의 특성과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함. 또한, 서로 다른 학교급의 보직 교사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과는 다른 예외 규정을 두어 보직교사를 증원 배치하여 업무 부담을 줄여주어 다른 학교급의 업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 다. **인사관리** 면에서는 상대 학교급의 교원들이 업무의 특성을 몰라주거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갈등은 다양한 장외연수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교육가족이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
- 라. **회계관리** 면에서 학교급의 특성에 따라 공통경비를 제외한 예산배분을 모든 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배분을 실시해야 함.
- 마. **시설** 면에서는 특별실 관리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학교급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출처: 오형문(2010).

1) 토론회가 작성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모델 및 운영체계 개발연구’ (2018년)와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개선방안’ 워크숍 자료(2011년)에서 가져옴.

2. 단위학교 내 통합 방안과 발전 전략

가. 기본방향

- 통합운영학교의 실질적인 통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무조직의 통합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이는 교무조직은 학교행·재정의 근간을 형성하는 학교 내 핵심적 업무추진체제로서 통합운영학교의 화학적 통합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학교급별로 교육과정의 운영체계가 서로 상이하고, 상급부서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장학, 인사, 승진, 예산지원 등에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강하고, 통합운영학교 역시 분리·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강함. 다소 어렵더라도 교무, 학생, 연구, 방과후학교, 창의·체험 등 핵심적 교무수행을 위한 조직을 통합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학교 내에 존재하는 각종 규칙, 위원회의 통합적 운영·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함. 가장 시급한 일은 학교의 의사결정의 핵심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일임.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학교에서 단일하게 설치·운영할 수는 없음.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는 물론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교원성과급제관리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법의 범위 안에서 학교차원에서 통합이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가. 교사들은 특색교육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풍부하게 경험할** 필요가 있으며, 탁월한 학교 비전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일회성 행사 교육 활동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계획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나. **공간 통합**을 통해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학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통합운영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각각의 성장과 학력 향상에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다. **소규모학교가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육대회, 축제, 마을도서관 등 통합 교육과정운영에서 유치원생, 초등 저학년과 중학생, 고등학생이 멘토 멘티가 되어 갈등이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경험하게 함.
- 라. **전문직 학습공동체활동**을 통해 학생발달과정, 학생중심교육과정, 수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과에 따라 각 학교급별 수업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마.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평생교육을 통해 학교공간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는 장으로 활성화**시킴.
- 바. 각 학교급별 교육환경과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갈등의 요소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관리자의 인식에 의해 운영이 달라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통합운영학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통합운영의 성과와 양상이 달라지므로 **교사와 관리자의 연수와 교육**에 의해 새롭게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줄 필요가 있음.

- 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형성할 수 있는 통합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운영학교만의 장점, 즉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의 장점과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아. 중학생에 맞는 또래 집단의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십대들의 갖는 정서와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변 지역 학교간의 교육활동 연계**가 필요함.
- 자. 통합운영학교는 안정적인 학생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 환경과 시설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교육활동을 펼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차. 무엇보다 재학기간의 확대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간의 교육과정, 교육활동, 학생상담 등에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
- 카. 신설교 등과 같이 겸직발령이 필요하다면 **복수자격 교사를 중심으로 우선하여 동일학교 내 초중학교 겸직발령 교사를 1명 정도 배치**한다.

나. 교원조직 발전 전략

- 교원조직이 통합운영학교 조직의 핵심적 통합 과제라고 할 때, 앞으로 교원조직의 통합을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통합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직원**을 위한 연수, 교육, 컨설팅이 필요하다. 대부분 교사들은 통합학교에 대한 목적과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연수를 이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령을 받았으며, 발령을 받은 후에도 광역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연수나 교육, 컨설팅을 받지 않고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하므로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과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 연수 및 컨설팅의 핵심 내용은 **통합운영학교의 지향 이념과 의미,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차이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편성 전략, 통합운영학교에서의 전문직 학습공동체의 의미와 실천 전략, 학급편성의 전략, 업무 통합에 따른 유의사항** 등이다.
- **행정적, 업무적으로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체형 시설 안에 행정실과 교무실의 통합 운영을 통해 교직원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스템 통합은 업무의 과중을 해소하고, 교원들의 업무 수행에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교내 교무-행정시스템 통합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만약 **완전 일체형 개방형 시설 확보가 어렵다면 최대한 서로 가깝게 배치하여 기능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행정업무는 최대한 효율화시키고 교육과정운영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전시성 행사를 축소하고, 각종 위원회를 학교급간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사성 행정 소요를 최소화시킨다.
- 학교급별 고유업무 처리와 학교 급간 원활한 업무 조율을 하기 위한 **급별 교감 배치**가 필요하다. 특히, 초·중통합학교 교감은 두 개의 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급별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할 수 있는 2명의 교감 배치가 필요하다.
- **복수자격 소지 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자격을 소지한 복수자격 소지 교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과정 공동운영, 겸임 발령에 의한 실질적인 상호 수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예체능 교과와 과학, 영어교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 **통합운영학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성장발달과정, 6년, 9년, 12년의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운영학교의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 학교급간 이질적 문화와 이질적인 업무로 인한 갈등의 발생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혁신성(교육과정 중심, 전문직학습공동체)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 초등과 중등, 중등 내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운영은 구분하되 교육과정 편성시 경계학년의 기준을 마련한다.
- 방과후학교와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급간 통합 편성하여 운영한다.
- 초등학교급은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학년군으로 묶고,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1~2학년, 중3학년~고1학년, 고2~3학년으로 묶어서 편성한다. 가급적 담임교사는 학년군 중임제를 통하여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
- 각 학년군 교사들을 위한 협업적 작업 공간(연구실, 회의실 등)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종 TF와 교육과정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 공통부서는 가급적 학교급별과 관계없이 각 학교급별 교원을 골고루 배치하는 공통조직으로 편제한다.
-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원들은 매트릭스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예를 들어 초등 1~2학년부 교원이면서 교무지원부 초등 교무를 담당한다.
-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들을 우선적으로 편제하되, 보직교사들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대부서체제를 도입하여 광역화한다.
- 핵심 교육활동지원부서로 교무지원부, 교수연구지원부, 정보자료지원부, 진로상담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가급적 학년 및 교과중심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한다.
- 각 주제(교수학습, 생활지도, 교육과정 등)별로 전문직학습공동체를 육성한다. 전문학습공동체는 1개월 1회 정기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 수석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여 학교급별 교차 연수나 공동 수업 발표를 주관한다.
- 대규모의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수석부장제도를 운영하여 업무조정 효율화를 도모한다.
- 학년군, 교육활동지원부서의 부장은 팀제의 수장(팀장)으로서 상당한 업무상의 권한과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 학부모가 학교급간 연계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종의 학교교육활동에 참여시키고, 학부모회를 활성화한다.

3. 행·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 전략

가. 통합운영학교의 지원 및 관리체제의 확립

- 이상의 애로사항, 발전전략 등을 고려할 하였을 때, 통합운영학교의 지원 및 관리체제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다음의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첫째, 통합운영학교의 법적 기반 정비임. 그동안 정부는 통합운영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적 기반의 정비를 위한 노력해 왔으나, 상당수가 관리 및 시설의 통합에 중점을 둔 물리적 통합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통합운영학교가 화학적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재정비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확충 내지 보완해야 할 것임
- 둘째, 교직원 배치 기준의 적정화임. 통합운영학교의 성패는 학교급이 통합된 학교에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교직원을 배치하는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교원조직의 배치기준을 학교급에 따라 교무행정조직 및 교육조직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되, 지역적, 학교환경적 특성에 맞는 교직원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함.
- 셋째, 예산 배정 기준의 적정화임. 통합운영학교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함. 다만,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도출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지원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이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과제임.
- 넷째, 관할청의 일원화 및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 전문화임.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운영학교 관리 및 지원의 실질적인 주체는 “관할청”인데, 이 관할청이 과연 시·도교육청인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있음. 특히 학교 자율화의 추세 속에서 상당수의 업무들이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및 이양되고 있는데, 통합운영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통합운영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사무별로 관할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관할하는 사무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부서를 지정하는 문제임. 현행처럼 관할하는 학교급별로 일반부서에서 통합운영학교를 담당하는 체제는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할(전담) 부서를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통합운영학교 지원체제(장학, 평가, 교육복지 등 각종 전달체제)의 정비임. 통합운영학교는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취약한 농산어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통합운영학교가 발전되기 위한 장학 등 지원 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도 필요함. 특히 관련 전문가에 의한 장학(supervision)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문성에

근거한 학교발전 노력이 부가될 필요가 있으며,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확인 체제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나. 통합운영학교 교원 인사관리 체제(양성 및 임용체제 등) 개편

- 통합운영학교의 성패를 가르는 또 다른 요소는 얼마나 통합운영학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통합된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격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현장에 공급하느냐가 매우 중요함.
- 현재 교원자격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교장 및 교감), 제2항(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사서교사(1급,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2급) 및 영양교사(1급, 2급))로 구분되어 있고, 이는 다시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별로 그 교장, 교감, 교사들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통합운영학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급별로 자격이 다른 교사들이 근무함으로써 서로 ‘화성인’ ‘금성인’ 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임.
- 물론 학교장이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심분 발휘하여 ‘우리 협력하여 잘 해보자’라고 외쳐본들 부분적인 변화(일부 선도적 통합운영학교 사례에서 보듯이 정규교과가 아닌 방과후 학교, 특별활동 등에서의 협력)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통합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인 것임. 물론 현재도 초·중등교원자격과 중등교원자격을 동시에 갖춘 교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고, 이들을 다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인사방침으로서 설정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통합운영학교로 발령을 내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통합운영을 위한 학교 유형, 교원의 자격이 정비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사항이 바로 교원 양성제도의 개선임. 대체로 세 가지의 방안을 우선 제안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전국의 교대,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에 걸쳐 통합운영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별도의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적 특수성(교육 대상,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렇게 교원이 양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성된 자격자들이 임용고시라는 관문을 넘어 교직에 입직할 수 있을 지는 또 다른 문제임. 물론 통합운영학교 교원임용을 위해 통합운영학교 교원자격자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임용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운행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저출산 시대를 맞아 교직수요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통합운영학교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자격있는 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한 학교급을 선택하고(예를 들어 교육대학에 설치된 초·중등교원양성기관을 통해서 통합운영학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초등임용시험으로, 사범대

학 또는 교육대학원에 설치된 중등교원양성기관을 통해서 통합운영학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등임용시험을 보게 함), 그 중에서 임용 후 통합운영학교에 근무(예를 들어 최소한 10년 이상)를 서약하는 자에 한하여 일부의 가점(만점의 3% 정도)을 부여한다면 우수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둘째, 기존의 교사들 중에서 별도의 통합운영학교 교원자격연수과정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양질의 통합운영학교 교직 이수과정을 별도로 운영하여 기존의 교사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음. 이러한 연수과정에서 기존의 초등교원들은 중등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다시 중등교원들에게는 초등교원들의 교직과정을 집중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교직과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임. 이미 교원정년단축 사태로 초래된 초등교사의 수급 부족으로 중등교사의 초등교사임용을 위한 특별연수과정이 운영된 경험이 있으므로 그 경험을 되살려 연수과정을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지만 이 방안은 과연 낙후된 통합운영학교에 근무를 자원할 교사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점이 문제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통합운영학교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할 것임.
- 셋째, 기존의 통합운영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모든 교원들을 의무적으로 통합운영학교 자격연수를 받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가장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통합운영학교 자격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자격연수과정을 통해 학교급별 차이를 이해함은 물론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임.
- 둘째와 셋째 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교육의 진흥에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한 통합운영학교의 육성에 뜻이 있는 많이 현직교사들이 자격이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예를 들어 특수지 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의 지급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마치며

- 학교교육의 기본틀은 일단 한번 확립되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성을 가짐. 기성의 제도에 익숙한 교사들은 다른 구조나 규칙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Tyack & Cuban, 1995). 어쩌면 통합운영학교는 교육현실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학교교육의 기본틀이 아닐까 생각함.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조직, 관련한 교원인사제도, 교원양성과정, 교사자격 및 연수제도 등이 핵심 제도적 틀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변화의 방향도 이상의 제도적 틀 개선 논의에 집중하여, 통합운영학교가 더 이상 ‘이상하고도 특별한’ 학교가 아닌 기본적 틀 속에 속한 하나의 학교로 자리잡기를 바람.

참고문헌

- 박효숙(2018). 유치초등학교 초중통합운영학교 운영사례. 서울형통합운영학교연구팀 제3차 워크숍 자료집. 127-152.
- 오형문(2010). 초,중 통합운영학교에서 학교급간 교원들의 갈등문제와 해결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연구논총, 31(2).
- 임연기,장덕호,백남진,정현용(2018).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모델 및 운영체제 개발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 Tyack, D. B., & Cuban, L.(1995). *Tinkering toward utopia*. Harvard University Press.

M·E·M·O



M·E·M·O

